

教育學 碩士學位論文

人文系 高等學校 美術教科教育의
內室化에 관한 研究

慶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教育行政專攻

吳 奈 京

指導教授 全 濟 相

2006年 12月

人文系 高等學校 美術教科教育의
內室化에 관한 研究

慶州大學校 敎育大學院

敎育行政專攻

吳 奈 京

이 論文을 敎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指導敎授 全 濟 相

2006年 12月

吳奈京의 敎育學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인

審査委員 인

審査委員 인

慶州大學校 敎育大學院

2006年 12月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II. 이론적 배경	5
1. 미술교육의 의의와 성격	5
2. 교과교육으로서의 미술교육	9
3. 현대 미술교육의 동향	29
III. 분석모형 및 조사설계	34
1. 분석 모형	34
2. 조사 설계	35
3. 자료 처리	36
IV. 조사 결과 분석 및 논의	37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37
2. 조사 분석 결과	37
3. 종합적 논의	61
V. 요약 및 결론	65
1. 요약	65
2. 결론	69
참 고 문 헌	71
부 록	73
ABSTRACT	78

표 목 차

<표 1> 미술교과 수업의 필요성	38
<표 2> 미술교과 수업이 필요한 이유	39
<표 3> 미술교과 수업과 일상생활의 관련성 인식	39
<표 4> 미술교과에 대한 선호도	40
<표 5> 미술교과를 좋아하는 이유	41
<표 6> 미술교과를 싫어하는 이유	42
<표 7> 미술 실기수업을 받을 때의 느낌	43
<표 8> 미술 교과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과 이해	44
<표 9> 미술 과제 수행 시의 학부모 반응	45
<표 10> 미술 이론 수업과 입시교육의 연관성 인식 정도	45
<표 11> 내신 성적과 관련한 학생의 미술 점수에 대한 관심	46
<표 12> 미술동아리 특별활동 참여 여부	47
<표 13> 미술동아리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이유	48
<표 14> 타 교과 교사에게 미술 실기작업을 제재당한 경험	49
<표 15> 정기고사 직전에 수행평가를 할 때 드는 느낌	40
<표 16> 미술실 사용 정도	51
<표 17> 미술실 사용 시 불편한 점	52
<표 18> 미술실 공간의 실기 수업 적합성	53
<표 19> 미술 실기 작품을 보관하는 장소	54
<표 20> 미술실 설비에 대한 만족도	55
<표 21> 학교에서 준비하는 실기 재료에 대한 만족도	56
<표 22> 미술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최우선 개선점	57
<표 23> 국민공통기본교과 미술 시수에 대한 생각	58
<표 24> 10학년 미술교과에 필요한 수업 시수	58
<표 25> 미술수업을 통해 가장 얻고 싶은 정보	59
<표 26> 미술교과 보충 수업의 필요성	60
<표 27> 첨단교구 확충의 필요성	61

그 립 목 차

<그림1> 연구를 위한 분석 모형	34
--------------------------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사회는 고도로 발달된 지식정보화 시대로 지식의 양이 급격히 팽창되고 있으므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며 국제관계의 다양한 변화에 대처해 나가기 위한 일반적이면서도 폭넓은 지식과 교양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현대 교육은 새로운 가치의식의 변화와 문화적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창의적이며 정서적인 인간 교육을 요구하고 있다.¹⁾ 그리고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더불어 인간의 정서와 직결되는 교육이 바로 창의성 계발과 정서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미술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창의성을 전제로 한 교육과정 패러다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은 아직도 대학 진학을 위한 주지교과 위주의 비이성적인 교육의 열풍 아래에 놓여져 있다. 그래서 정작 창의성 계발의 가장 중요한 도구이며 건전한 인성과 정서의 조화로운 함양에 직접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교과인 미술교육도 여전히 교육과정 속에 구색만 갖춘 꼴로 등한시되고 있다.

국민공통기본교과로서 마지막 단계인 7차 교육과정 10학년(고1)의 미술은 공통교과로서의 미술교육을 공식적으로 마감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그간의 교육적 성과를 살펴봐야 할 시점이니만큼 미술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저해되거나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문제들을 다시 한 번 짚어보아 미술교육이 고유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내실화 방안이 적극적으로 강구될 필요가 있다.

10학년의 미술교과는 청소년기에 쌓아야 할 일반 소양과목이기도 하거니와, 가장 예민한 청소년기의 감수성을 여러 가지 기재와 직접적인 활동을 통해 자극하여 바람직한 정서를 갖출 수 있는 중요한 계기 교육이다. 또한 개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시각적 표현을 통해 조형 문화의 형태로 창조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이며 나아가 개인의 심미적인 안목 계발 및 미적 가치를 규명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개인의 독자적인 정서와

1) 김정, 「미술교육 총론」, 서울: 학연사, 1993. p.100.

조화로운 사고를 통해 생활주변에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분야이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급격한 변화와 더불어 미술교육의 필요성은 보다 절실해져가고 비중도 국민공통기본교과로서의 위상을 비롯해 선택과정, 심화과정을 통해 표면적으로는 증대되고 있는 시점이지만, 실제 현장의 수업 상황은 커리큘럼 상의 모든 과목 가운데 가장 쉽게 배제되고 가장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특히 인문계고등학교의 경우는 대학입시를 목표로 하는 과정이다 보니 수능능력시험영역에 직접 분류되는 과목이 아닌 미술교과는 그야말로 필요성이 전적으로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미술교육이 조형 활동을 통한 시각 등의 감각기능 교육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교과 차원을 넘어서서 심신의 모든 감성적 기능을 통해 지각과 사고를 발달시키고 조화로운 인간 형성에 이바지하는 전인적 교육 기능으로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²⁾ 교육의 목적이 지·정·의가 조화된 바람직한 인간 형성에 있다면, 미술교육 또한 미술을 통한 인간교육에 근본을 둔다. 미술에서의 사상과 직관과 감정은 교육에서의 인간 존엄성 및 주체성과 통하며, 창조나 가치는 잠재가능성, 가변성 및 진보와 통한다. 또한 미술에서의 조형 형식은 교육에서의 계획 즉 질서 및 합리주의와 통한다.³⁾

그러므로 미술교육의 본질적 의미에 보다 접근할 수 있고 시대가 요구하는 미술교육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위해 현장교육의 심리적, 시간적, 물리적 문제점들을 진단 및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사 차원에서 실천 가능한 방법론을 모색해 그간 입시 위주의 교육에 밀려 위축되고 본질이 퇴색되어 본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미술교육의 내실화를 꾀하는데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제7차 교과과정은 창의성 교육이라는 형식적인 틀을 완성했고 최근 출판된 미술교과서는 지적통찰을 바탕으로 한 교육이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래에 들어서는 인터넷과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교과 과정 자체로 본다면 비교적 개방적으로 새로

2) 교육부, 「중학교 미술과 교육과정 해설」, 1994. p.224.

3) 임정기 외, 「미술교육 총론」, 서울: 예경, 2006. p.17

운 변화를 일정 부분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미술교육의 중심은 여전히 입시를 위한 미술기능공을 양산하는 학원이 차지하고 있고, 미술을 전공하지 않는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있어서 미술교육은 수행평가 과정을 통해 적당히 점수나 따고 지나가는 형식적인 과정일 뿐인 것이다. 학교 미술교육의 효용성은 과거나 지금이나 평가 절하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 파생된 문제점들이 그 나름의 심각성을 가지고 해결이 힘든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다 보니, 수많은 문제점을 모두 도출해 내어 그 전부를 해결하거나 개선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그러나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교육의 효과와 목표를 재인식하고 구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히 입시 교육으로 인해 파행적으로 운영되기 십상인 인문계 고등학교 미술교육과정을 통해 표면화된 문제점들을 실증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성은 더욱 증대된다. 인문계 고등학교 미술교육과정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 도출되는 문제점은 새로운 관점에서의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미술교과교육의 위상을 제대로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고등학교 미술교육 현장의 사기를 저해하거나 무관심을 야기하는 요인으로는 우선 타 교과에 비해 낙후된 시설과 설비 등의 물리적 조건, 학생의 잠재능력을 다방면으로 시도해 볼만한 여건의 부족, 입시교육에 떠밀려 미술교육의 가치를 경시하는 분위기, 현행 입시 체제하에서의 시수 확보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인문계 고등학교 미술교과교육 내실화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확인해보고, 개선방향을 모색,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이 연구에서는 관련 문헌 자료와 선행 연구를 조사 분석하여 이론적 배경을 구축하였다. 이론적 배경으로 미술 교육의 의의와 성격, 교과로서의 미술교육, 미술교육의 수업 환경, 고등학교 미술교육과정, 현대 미술 교육의 동향을 알아보았다.

연구의 조사 도구로는 관련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된 설문지를 2차례에 걸쳐 수정, 보완하여 총 27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은 인문계 고등학교 미술교육을 받고 있는 10학년 남녀학생들을 대

상으로 하여 조사하였다.

울산 시내 10개 학급 이상으로 구성된 인문계 남자고등학교, 인문계 여자고등학교, 인문계 남녀공학고등학교 각 1개 학교의 10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3개 학급씩을 표집하여 최종 연구 분석에 사용하였으므로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는 한계를 갖는다.

Ⅱ. 이론적 배경

1. 미술 교육의 의의와 성격

가. 미술 교육의 의의

미술 교육은 인간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표현이라는 감성적인 본능을 북돋아주고, 개방적이며 수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유롭고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개개인이 생각하고 느끼고 인식하는 개인적 가치를 표현하게 하는 교육이다. 또한 개개인의 생활의 경험을 표현하게 하여 생활의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고, 삶을 윤택하고 충실하게 하며, 더 나아가 생활의 혁신, 건전한 생활, 효용성의 생활로 이끌 수 있는 교육이다.

이러한 미술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미옥은 미술교육의 의의를 생활감정의 표출을 통한 미적 인간 형성이요, 지각과 정서를 균형있게 발달시키고 인간의 순수한 감정을 육성하는 교육임과 동시에 미술교육은 실제로 인간의 감정을 표출하는 동시에 창조하는 본질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고 하였다.⁴⁾

이상희는 미술교육의 의의를 조형 활동을 통해서 보고, 느끼고, 생각하면서 자기 표출을 하고 조형의 창조성을 발견하는 학습활동이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미적 생활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며, 인생의 삶을 보다 풍부하게 느끼며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하였다.⁵⁾

김춘일은 미술로 하는 예술교육은 대상의 참된 특성과 의미를 직관할 수 있는 독창적인 인식 능력을 생생하게 되살리고, 폭넓게 만들어 준다. 그리하여 한결음 더 ‘진실’에 가까이 다가서게 하고 균형 잡힌 인격의 기초를 세워준다. 미술교육의 의의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였다.⁶⁾

김정은 미술은 인간의 눈을 맑게 해 준다. 생각하고 만드는 일, 이해하며 고쳐 가는 일, 아름답게 꾸미는 일, 잠재력을 불러일으키는 일, 앞과

4) 조미옥. 「미술교사의 전공분야와 학교미술교육과의 관계 연구」.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p.5.

5) 이상희. 「고등학교 미술교육 실기환경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p.4.

6) 김춘일. 「아동미술교육의 목적과 특성」. 초등교사미술연수자료. 1993. p.1

뒤, 뒤와 옆의 조화를 이루는 감각, 흐트러진 상태를 아름답게 구성하는 일, 합리적인 형태를 보는 일 등은 인간을 풍부하게 만든다. 첨단기술(尖端技術)을 자랑하는 컴퓨터도 인간의 두뇌에서 출발한 것이다. 아무리 전자두뇌(電子頭腦)가 잘 해 낸다 해도 인간의 정서적 두뇌(情緒的 頭腦)는 따라올 수가 없다. 그 힘은 오직 창조 행위이다. 그것이 미술을 통한 교육, 즉 미술교육의 기능이자 역할인 것이라고 하였다.⁷⁾

일반적으로 인정된 미술 교육의 가치는 자아 표현의 기회와 방법을 제공한다는 것, 관찰력과 미적 감각을 발달시킨다는 것, 정서를 함양하여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한다는 것, 조형성의 개발과 창조의 기쁨을 제공한다는 것, 그리고 창의성과 개성을 강화시켜 좌뇌와 우뇌의 균형적 발달과 자아의식을 고취한다는 것 등으로 요약된다.⁸⁾ 유치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의 교육 목적은 기본적으로 전인교육에 있는 것이므로 미술 교육도 마땅히 그러한 목적에 부합되는 하나의 수단으로 자기 몫을 다 해야 한다. 예술은 과학과 비교해 여러 측면에서 상반된 속성을 가지는데 특히 미술은 비과학적이고 초이론적 성향이 많다. 그러므로 미술 교육은 단순히 그리기를 가르치고 배우는 측면보다는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발견하며 깨달아야 하는 지적 측면과 함께 다양한 실험적 조형 작업을 통해 그 깨달은 바를 표현하고 더욱 승화시켜가는 창조적 측면을 생명으로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선행 연구나 관련 저서를 통해 알아본 미술교육의 의의를 토대로 종합적인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교육은 눈을 통해 지식이나 정보의 대부분을 얻어 온 인간의 시각적 사고를 확장시킨다.

둘째, 활발한 우뇌활동과 관계가 있는 미술교육을 통해 주지교과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침체되기 쉬운 감각과 감수성을 일깨워 좌,우뇌의 균형 있는 발달을 가져온다.

셋째, 시각과 공간의 언어로 질적 사고(qualitative thinking)를 통한 세계나 사물을 인지하고 자신의 사고를 형상화함으로서 생동감 있는 미적 체험을 심화시킨다.

7) 김정. 「중보관 미술교육 총론」. 서울 : 학연사. 2006. p.25.

8) 김영학. 「미술교육」. 서울 : 대원도서. 1992. pp.12~13.

넷째, 미적 체험을 통해 올바른 삶과 삶을 일깨우면서 생활을 생동감 있고 아름답게 만든다.

다섯째, 자유로움 속에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다양한 물질과 방법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일깨워 개성 있는 자아표현의 방법을 제시한다.

여섯째, 자국의 민족문화를 시각적 교육을 통해 이해하고 새롭게 자신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게 하여 민족문화의 창조적 계승과 세계화, 국제화에 이바지한다.

일곱째, 가치인식과 미적 체험을 통하여 원만한 인간성을 갖추는데 기여해 감성과 창조성이 중요시되는 문화의 시대에 감정의 올바른 조절과 감동을 회복시켜준다.

나. 미술교육의 성격

19세기 후반, 학교교육에 미술교육이 도입되면서부터 오늘날까지 미술교육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나름대로 그 중요성은 인정을 받아왔다. 미술교육의 기능과 성격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사회적 요구와 미술 및 그 관련 학문의 발달 등으로 인해 변화되어 왔는데, 미술교육의 일반적인 성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 교육적 성격을 들 수 있다. 산업혁명 이후 디자이너와 공예가 같은 기능인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여 직업 준비의 성격으로서 미술교육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둘째, 인성 교육적 성격이다. 미술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함으로써 창의성과 개성을 함양하여 인격의 조화로운 발달에 기인하는 인성 교육적 성격을 띤다.

셋째, 문화 교육적 성격이다. 현대사회는 19세기 이후 계속되어온 과학의 발달을 통한 물질적인 풍요와 생활의 여유로 인해 문화적이고 정신적인 삶의 질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술소비자 교육이 대두되면서 시대적, 사회적 배경이나 민족성, 역사성 등의 맥락 속에서 과거의 문화를 이해하고 계승하며, 현재의 문화를 건전하게 형성하고 미래의 문화를 발전시켜나가는 문화 교육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상은 미술교육의 일반적인 성격이지만, 미술교육이 하나의 교과로서

교과과정에 편성되어 그 정당성을 인정받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미술이 인간의 경험에 제공할 수 있는 특수성을 강조한 전인 교육적 측면으로 미적 교육론, 정서 교육론, 창조 교육론, 개성 교육론을 들 수 있고, 사회의 요구를 미술이 수용한다는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생활 교육론, 표현 교육론을 이야기 할 수 있다.

첫째, 미적 교육론은 미적 활동 또는 미적 능력의 함양을 통하여 이성과 감성이 조화되는 전인적 인격을 갖추게 하려는 교육론으로 과학과 기술에 의한 기계화, 비인간화 등에 대항하여 전개된 예술교육운동의 성격을 띤다. 고대 그리스의 이상적인 인간상, 플라톤의 감성교육, 18세기 루소의 정서교육사상 등이 배경이 되었다. 인간 교육은 예술에 의한 미적 교육의 육성이라는 쉴러의 사상에 기초하여 영국의 러스킨과 모리스 등이 중심이 되어 전개시켜나가면서 20세기에는 전 유럽과 미국으로 확산되어 갔다.

둘째, 정서 교육론은 예술활동을 통해 정서를 순화시키고 미적 감성을 기르려는 교육론이다. 예술적 감성에 기초하여 미적 덕성을 육성하고 예술적 생활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랭거는 예술이 인간발달의 첨단이며 만약 사회가 이를 도외시 할 때는 도덕적 퇴폐가 뒤따른다고 하였다.

셋째, 창조 교육론은 기계와 기술에 의해 점차 상실되어 가는 인류 진화의 원동력으로서의 인간의 창조성을 예술교육을 통하여 회복하려는 교육론으로 프란츠 치젝(Franz Cizek)의 사상인 '자유표현주의(Free expression)'가 확산된 것으로, 지시와 간섭 및 조건을 가하지 않고 자발성을 중심으로 유희를 하듯 표현이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개성 교육론은 인간의 자아 및 개성을 소중히 생각하며 이를 위해 자신이 생각하고 느낀 것을 창의적이고 개성적으로 표현하게 해야 한다는 교육론으로 루소, 페스탈로치 이후의 개인주의, 인격주의 교육사상이 계기가 되었으며 개인주의와 민주주의가 발달한 영국과 미국에서 폭넓게 연구되었다. 허버트 리드(Herbert Lead)는 「Education through」라는 저서를 통하여 교육은 획일적인 것이 아닌 개인주의와 민주주의의 다양성에 바탕을 두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섯째, 생활교육론은 생활을 미화 또는 예술화하려는 노력 중에서 인간교육과 문화에 최고의 목적을 두는 교육론으로 미술을 통해 생활을 가

꾸고 예술화하며 문화양식을 습득하려는 실용주의적 입장의 생활중심교육이다. 미는 인간들의 생활과 멀리 떨어져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 주변에서 삶을 운택하고 충실하게 하는 것이라는 내용이다.

여섯째, 표현 교육론은 재료와 용구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능력의 계발을 통해 미술가나 디자이너 등을 기른다는 교육론이다.

이와 같은 미술교육의 다양한 교육론을 통해 우리나라 미술교육의 특성을 세 가지 관점에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우리에게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견해는 정서교육으로서의 미술교육이다. 둘째, 주로 60년대부터 제기된 주장으로서 창조성의 육성을 위한 미술교육이다. 셋째, 여러 형태의 미술 활동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만들고 그리는 등의 이른바 표현 능력을 기른다는 관점이다. 따라서 미술교육은 미술의 형식면에서는 조형성을, 그 형식이 담겨지는 내용면에서는 창의성을, 내용과 형식면이 감상된다는 면에서 정서성을 들 수 있다.

미술교육은 미술이라는 분야와 교육이라는 활동이 한 영역에서 교육적 목표를 가지고 만나는 것이다. 미술과 교육이 만나서 새로운 세계를 이루고 그 자체의 질서를 가지고 존재하는 것이 미술교육이다. 그러므로 미술교과는 공간 속에서 시각적, 조작적 활동을 통한 물질적 체험을 중심으로, 미적 경험을 토대로 한 이해, 표현, 감상 활동 속에서 정서성과 창의성, 조형성을 일차적으로 계발한다. 그리고 미적 체험의 심화를 통해 개인의 원만한 인격적 성숙과 조화 있는 인간성 육성을 지향해 미술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에 다가가는 것이다.

2. 교과교육으로서의 미술교육

가. 교과로서의 미술교육

미술교과는 초등교육과정에서부터 고등학교과정까지 언어, 사회, 과학, 수학 등의 교과와 더불어 학교 교육의 기초 영역으로서 그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시각예술의 이해가 학생들의 지적 성장을 도울 뿐만 아니라 미술 그 자체가 다른 교과의 학습을 강화시키거나 돕기 위하여 가르쳐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균형 잡힌 내용과 체계적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질 높은 미술교육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은 당연한 일이다.

여러 교과들 중 대다수의 교과들은 교육 과정과 내용이 조금씩 다르더라도 수업 목표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되도록 가르쳐지고 있다. 수학의 예를 들어보면, 덧셈의 경우 숫자로 더하든 구체물로 더하든 하나의 답이나 결론에 이르도록 학습되어진다. 그러나 미술교과는 방법이나 내용도 다르지만 결론도 각자 다르게 표현되고 다양한 생각이나 사고에 이르도록 교육되어진다.

이것은 미술 교육이 다른 교육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특징의 하나이다. 미술교육의 여러 영역 가운데 표현 부분만 하더라도 개개인의 서로 다른 시각이나 생각, 또는 서로 다른 감정의 가시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고정된 시각이나 관념, 그리고 개념화에서 탈피시켜준다. 또한 독특한 자신의 개성을 알게 해주고 자신의 성격에 맞는 표현과 자신만의 독특한 창의적 사고를 일깨워 주고 장려하는 것이 교과 목표이므로 이것은 다른 교과에서 대체될 수 없는 부분이며 간과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학교 교육과정 상 다른 교과로 대체할 수 없다고 하겠다. 교과교육으로서의 미술교육에 대하여 미술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에 입각해 그 내용을 정리해 본다.

전인 교육을 위한 미술교육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해 미술 교육의 본질을 살펴보면 미술교육은 인간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표현이라는 감성적인 본능을 복돋아주는 교육이다. 그리고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유롭고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개개인이 생각하고 느끼고 인식하는 개인적 가치를 표현하게 하는 교육이다. 또한 개개인의 생활의 경험을 표현하게 하여 생활의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고 삶을 윤택하고 충실하게 하며, 더 나아가 생활의 혁신, 건전한 생활, 효용성의 생활로 이끄는 교육이다.⁹⁾

교과교육으로서 학교 교육과정 상에서의 미술교육의 목적은 지적, 정의적, 심동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전인적 인간을 형성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미술 교육의 목적은 미적 인간 육성에 있는 것이다.

9) 윤양희, 「미술과 교육의 역할 및 평가 방향 탐색」, 교육개발 통권 70호, 한국교육개발원, 1991, p.54.

나. 미술 교과 교육의 특성

미적 인간 육성을 위해 조형능력 신장을 통한 사고력 육성, 정서와 인성의 함양, 창의력 발달 측면에서 미술 교과 교육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사고력 신장 측면

일반적으로 사고란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상징적 활동으로 사려 깊고, 규제적이며 창의적인 판단과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지향적인 것이다.

쉽게 말하면 학습, 기억, 언어, 이해, 의사결정 등과 같은 정신활동이며 머리 속에 있는 표상을 조작하는 활동이다. 표상은 단어, 이미지, 아이디어, 기호, 숫자나 다이어그램 등과 같은 것을 통하여 표현된다. 이러한 표상은 머리 속에 있는 정신적인 것이므로 보이는 것이 아니다. 사고는 이러한 내적 표상을 다루고 조작하는 활동이다.

사고력은 창의적인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지어 볼 때 미술과 사고력은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사고의 태도는 동기화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적극적인 학습과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전의 학습경험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미술에서도 마찬가지로 미술활동에서 칭찬을 받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자부심을 제대로 가지지 못하고 성공에 대한 기대가 낮을 수가 있다. 스스로의 노력을 통하여 성공의 가능성을 경험해 보는 사람은 노력과 성공은 대개가 전적으로 상관되어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사람은 적극적인 사람이며, 학습의 결과는 노력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믿는다.

사고 태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며 넓게 사고하고 모험적으로 질문하며, 분명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추리하며, 자신의 사고를 조직화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다시 말해서 바람직한 사고 태도 특징은 자신의 사고를 자각하고 적극적으로 실행해 가며, 훌륭한 사고가 어떤 것인지를 더 깊게 이해하려고 하며, 그리고 좋은 사고 습관을 계속하여 개발하려고 노력해 가는 것이다.

훌륭한 사고 태도는 그러한 풍토 속에서만 자랄 수 있다. 가정과 친구

와 조직과 사회 전체가 탐구적인 사고, 열린 사고, 분명한 사고, 조직적인 사고를 가치롭게 여기고 격려하느냐가 바람직한 사고 태도 개발에 결정적이다.¹⁰⁾

사고력 측면에서 미술교육은 사물을 주관적으로 보고 분석하고 관찰하도록 이끌며, 추상적인 사고를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하도록 함으로써 상징성과 의미성을 갖는다.

미술품에 나타나는 작가의 의도, 생각, 감정, 재료 외의 문화적인 요소와 형태가 어떻게 변형, 변화되어 표현되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문화의 다양성과 관련성 등을 유추해 내기도 한다. 작가들이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수없이 다듬은 생각을 작품에 반영해 창의적이고 고유한 표현을 하듯이, 이러한 것은 학생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학생들은 작업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이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

학습자가 작업을 시작하려면 우선 생각을 하게 된다. 그것은 학습자 자신과 그 자신의 경험과의 만남을 의미한다. 미술을 통한 사고력의 증진은 사고의 폭을 넓히는 것이 된다. 사고의 폭을 넓힌다는 것은 미술교육에서나 그 밖의 일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이다. 사고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각자의 개별적인 수준에서 출발해야 한다

또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그가 그것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에 의한 생각을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생각하는 과정은 그의 사고 능력과 표현하기 위해 집중하는 능력을 자극한다. 우리가 관찰하는 관심의 정도에 따라 위치의 기억 여부가 결정된다. 의식적인 관찰, 즉 세밀하게 보는 것만이 그러한 특정한 위치에 대해 알 수 있게 하며 새로이 알게 된 지식은 명확한 인식으로 구체화 될 수 있다. 민감한 정서적 유대는 대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경험에 의해 길러질 수 있다.¹¹⁾

시지각은 형태를 발명하는 수단으로, 복잡한 대상을 보고 형태와 공간의 구조 및 질서를 파악하게 해 준다. 그래서 루돌프 아른하임도 그의 저서 「Visual Thinking」에서 보는 일이 곧 시각적 사고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학교 교육에 있어서도 사고력을 통한 풍부한 감수성과 풍요롭고 유

10) 김영채. 「사고력 이론 개발과 수업」 서울 : 교육과학사. 1998. pp.6-13.

11) 로웬펠트, 브리테인 공저, 서울교육대학교 미술교육 연구회 역. 「인간을 위한 미술교육」 서울: 미진사. 1993. pp.35-37.

연한 정서적 유대 관계를 피하기 위해 미술교과 학습을 계속적으로 격려하고 긍정적으로 자극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정서와 인성 교육적 측면

대부분의 학자들이 정서를 어떤 대상이나 상황을 지각하고 그에 따르는 생리적 변화를 수반하는 복잡한 상태라고 보고 있다.¹²⁾

옥스퍼드 사전에서는 정서를 마음과 감정, 그리고 걱정의 동요나 혼란, 즉 격렬하거나 흥분된 정신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대니얼 골먼은 정서를 하나의 감정과 그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뚜렷한 사고 및 심리적 생리적 상태와 일련의 행동 경향이라고 말하고 있다.¹³⁾ 인간이 대상을 볼 때 단순히 사실을 인지할 뿐 아니라 아름답다, 밋다, 기분 좋다 등의 가치를 매긴다. 이런 신체 내외의 자극을 일으키는 주관적 동요와 정신 활동의 체험, 대상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 등이 감정이고 정서다.¹⁴⁾

정서는 어떤 대상이나 상황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감정과 행동이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인 것이다. 정서의 어원인 밖으로 움직인다(emovere)에서 알 수 있듯이 정서는 인간에게 발생한 어떤 사건의 직접적인 결과라기보다는 인간의 마음 속에서 생각한 바가 밖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⁵⁾

정서지능이라는 용어는 Salovey와 Mayer(1990)¹⁶⁾가 처음으로 사용하였는데 이들은 정서 지능은 전통적으로 논의되어 오던 사회 지능의 하위 요소로서 자신과 타인의 감정과 정서를 점검하고 그것들의 차이를 변별하며,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이런 정보를 이용 할 줄 아는 능력이라고 제시하였다. 초기에 정서 지능을 자기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평가하며,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이끌 수 있는 능력

12) 김정희. 「정서란 무엇인가」 서울: 민음사. 1995. p.12.

13) D. Goleman. 「Emotional Intelligence」 N.Y. Bantam. 1995. p.289.

14) 한명희. 도덕적 요인으로서의 정서의 역할과 교육. 교육학연구. 제17권 2호 1979. pp. 107~108

15) 이규선 외 「미술교육학」 서울: 교육과학사. 2000. p.45.

16) 이정옥 「정서 지능 증진 프로그램이 유아의 감정이입 및 문제해결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p.6.

즉, 정서의 평가와 표현, 정서의 조절, 정서의 활용의 3개 영역 10개의 하위요소로 구분하였다.

정서 지능은 미국의 골먼(Goleman)의 「Emotional Intelligence」란 저서가 출간되면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정서지능은 자기 자신의 감정 상태를 인식하고, 그 감정을 타인에게도 적절하게 전달할 수가 있으며, 충동을 자제하고, 분노를 삭이며, 상황을 낙관적으로 파악할 줄 아는 능력 등을 의미한다. 개인의 정서적 안정감과 잠재적인 자신감, 미래에 대한 신념을 통해 올바른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세상의 사물과 시대의 상황을 능동적이고 낙천적으로 교감하며, 대인관계는 물론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친화성과 포용력을 발휘하는 능력을 뜻한다. 정서지능은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주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의욕을 잃지 않게 하고 기분을 조절하고 고뇌 때문에 사고 능력이 방해받지 않게 하며 감정이입과 희망을 키워 주는 능력이다.¹⁷⁾

정서지능은 학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Salovey와 Mayer가 주장한 다섯 가지 능력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 다섯 가지 능력은 자기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과 자기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인지하는 능력, 마지막으로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능력이다.

미술교육이 정서와 인성교육으로서 효과적으로 계발될 수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서 정서지능의 다섯 가지 능력으로 분류된 자기감정인식, 자기감정조절, 자기 동기부여, 타인 감정 인식, 원만한 대인관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¹⁸⁾

첫째로 미술교육은 자기 정서를 인식하게 하는가? 미술은 학생들이 자신을 표현하는 가장 직접적인 매체이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이 그대로 표현되고 표현된 것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자기의 감정, 개념, 상상 등을 미술을 통해 시각적, 공간적, 조형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로 미술교육은 자기 자신 정서 조절에 도움이 되는가? 우리가 화가 나거나 슬플 때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낙서이다. 미술교육을 통

17) D. Goleman. 앞의 책. p.34.

18) 이규선 외. 앞의 책. pp.48-49.

해 쌓여 있는 분노나 화 등을 그림을 그리면서 자연스럽게 순화하여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미술은 정서 함양에 아주 좋은 교과인 것이다.

셋째로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을 키워 주는가? 동기부여는 스스로에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미술 수업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이 바로 동기부여이다. 동기부여를 통해 발상을 자극하고 각자 자신의 경험과 느낌을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넷째로 미술교육에서는 감상을 통해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읽는 경험을 계속 할 수 있다. 미술이 자기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작품 감상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른 친구들이 표현해 놓은 작품에서 그 친구의 감정, 그 친구의 느낌, 의도를 읽는 연습을 계속하게 된다. 따라서 감상을 통해 감정이입하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되고 그것이 반복되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파악하는 능력이 배양되는 것이다.

끝으로 미술은 맞고 틀리고가 아니고 경쟁이 적으므로 타인과 원만하게 지낼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진다. 또한 협동 작업을 통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 수 있는 힘도 기를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미술은 개성적인 표현을 강조하는 특성으로 인해 각자의 개성을 살리면서 서로 협동하는 습관까지 기를 수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미술교육은 미술 경험 자체가 본질적으로 감성지능의 주요 능력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다양한 미술활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정서지능의 능력들이 길러 질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교육 현장에서도 학생의 정서를 기를 수 있는 환경은 필수적이다. 미술을 통해 정서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표현 기능을 높이기 위한 기법 위주의 수업을 지양해야 한다. 자신의 감정을 소중히 하여 격려해주고, 격한 감정을 미술 표현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또한 감상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읽을 기회를 많이 부여하고 다른 학생들과 함께 표현하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그래서 학생들이 재미있고 다양한 미술활동 속에서 정서를 함양하고, 정서를 순화하며, 정서지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3) 창의성 발달 측면

창의성은 일반적으로 새로움에 이르게 하는 개인의 사고 관련 특성으로 정의되고 있다. 새로움이란 창의적 사고의 가장 궁극적 목표이자 결정적 특성으로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아이디어의 산출자가 속한 집단의 시간적 공간적 한계 범위가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새로움에 부수되는 ‘쓸모 있음’의 적용 시기이다. 셋째, 새로움에 부수되는 쓸모 있음의 효과 크기이다. 여기서 개인이란, 사고는 근본적으로 한 개인의 문제라는 것을 의미하며, 특성이란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의 특성과 창의적으로 사고하려는 태도의 특성을 의미한다.

창의성의 개념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정리해 보면 다음의 다섯 가지로 묶을 수 있다.¹⁹⁾

첫째, 창의성을 인지적 측면에서 보는 학자들은 길포드, 토랜스, 궈슬러, 그루버(Guilford, Torrance, Koestler, Gruber)로 이들은 창의성을 창의적인 문제 해결 과정이나 사건간의 연합 능력 등으로 본다.

둘째, 성격과 환경의 측면에서 보는 학자들은 베보, 아이스너, 스타인, 스키너(Barron, Eisner, Stein, Skinner)로 이들은 창의성이 개인의 성격특성이고, 정의와 인지의 상호작용이라고 본다. 셋째, 인본주의와 심리적 성장의 측면에서 보는 학자들은 매슬로우, 로저스, 시몬톤(Maslow, Rosers, Simonton)으로 이들은 창의성을 자아의 완성을 통한 자유의 획득이라고 본다. 넷째, 정신분석의 입장에서 보는 학자들 프로이트, 융, 크리스(Freud, Jung, Kris)로 창의성을 억압된 압력을 배제하고 건전하게 적응하는 인식과 감수성이라고 주장한다. 끝으로, 창의성을 자기 도취적 상태로 보는 학자들은 허스톤, 에릭슨, 고완(Houston, Erickson, Gowan)으로 창의성이 개인적 도취적이나 내면 의식의 확장이라고 주장한다.

창의성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살펴볼 때, 창의성은 새로움 및 개인의 사고 과정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창의성에 대한 개념이 점차 과학적이고 합리적 특성으로 바뀌었음을 볼 수 있으며, 그것은 백지 상태에서 번뜩이는 그 무엇이 아니라 다양한 정보와 많은 사고 과정 속에서

19) 임선하. 「창의성의 초대」. 서울. 교보문고. 1998. pp.20-21.

이루어지는 것임이 강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창의력은 지적 능력을 기초로 하여 문제 사태에 대해 최선의 해결책을 창출해 내는 것으로 인간의 성격 발달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주체적이고 의욕적이며 생산적인 사람에게서는 흔히 발견되는 능력이지만, 잠재능력으로 부여된 것으로 교육에 의하여 계발 및 신장이 가능한 능력이라 할 수 있으므로 교육을 통해 함양될 수 있다.

미술은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방식을 새롭게 변화시켜줄 뿐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게 해준다. 미술이 가지는 특성에 있어서 창조에 관한 원칙은 인간 정신의 특유한 것으로 없는 것에서 있는 것,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 불확실한 것에서 명백한 것으로 인간이 갖는 기본적인 충동에 의지한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기호나 신비나 공상을 창조해 준다. 인간에 있어 창의성은 개개인의 기질이나 성품에 따라서 다른 타입으로 나타나며 미술의 경우 하나의 독창성을 부여해 준다.²⁰⁾

창의성이란 말은 19세기말부터 미술교육에 등장하여 치첵(Cizek)이 자주 사용했으며 로웬펠드(Lowenfeld)에 이르러 미술교육의 가장 중심 개념으로 자리하였다. 치첵이 자유로운 자기표현에 의한 미술교육의 실천을 주창한 이후 창의성 중심 미술교육은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보급되었다. 이는 허버트 리드가 주창한 ‘미술을 통한 교육’으로 대변된다. 이는 미술을 통해 교육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이론으로, 이 사조의 특징은 자유로운 자기표현을 통한 창의성 육성에 있었다. 창의성 중심 미술교육의 주된 배경으로는 아동 중심 교육사조, 심리학의 발달, 표현주의 미술의 등장 등을 들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인간 내면의 직접적인 표현을 강조하는 표현주의 미술사조의 경우, 어린이의 내면세계를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는 미술교육으로 연결되었다.²¹⁾

미술교육에서의 창의성을 중요한 개념으로 로웬펠드가 강조하였는데 그는 미술을 통한 인간교육을 강조하면서 미술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의성을 계발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창조 활동, 바로 그 자체가 보다 나은 행동을 위한 새로운 통찰력과 지식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며, 창조를 위한 가장 좋은 준비는 창조행위 그 자체로 본다. 미술 활동을 통해 색칠

20) 이규선 외. 앞의 책. pp.40-41.

21) 김 정. 「미술교육총론」. 서울. 학연사. 1993. p.42.

하고 만드는 모든 경험은 주위 환경과 동화하고 그것에 어린이 자신을 투영하는 끊임없는 과정인 것이다. 이런 방대한 양의 정보를 감각을 통해 받아들이고, 그것을 심리적 자아에 통합하며, 그 시대의 어린이의 미적 욕구에 알맞은 조형 요소들을 새로운 형태에 적용하는 것이다.²²⁾ 이처럼 미술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창의적인 사고 주체인 개인을 발달시키는 데 있음을 강조하였다.

창의성 중심 미술교육의 대표적 특징으로 자유로운 자기표현의 추구하고 미술을 통한 창의성의 육성, 표현 과정 등을 들 수 있다.

창의성 중심 미술교육은 미술을 인간의 조화로운 성장을 돕고 잠재력을 계발시켜 주는 도구로 본다. 또한 예술과 과학의 발달이 주로 창의력의 산물이기에 교육에 있어서 창의성 계발은 매우 중요하며, 창의성 계발에 가장 좋은 교과가 미술이라고 생각한다. 창의성을 중심으로 하는 미술교육은 확산적 사고를 촉진하며, 창의성의 요소인 감수성,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재조직력, 구성하고 추상하며 종합하는 능력 등을 발달시킨다고 보았다. 또한 미술 교육을 통해 길러진 창의성은 다른 모든 교과에 전이되며, 사회생활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그 효용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미술교육의 방향과 창의성에 대한 검토에 비추어 미술교육에서의 창의성에 대한 바른 접근은 다음과 같다.²³⁾

창의성은 자유롭게 많은 표현기회를 부여한다고 해서 효과적으로 계발되기보다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교육에 의해 효율적으로 계발되며, 창의성은 백지 상태처럼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전혀 계발되지 않으며,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발견, 새로운 형태의 창조 등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발견하고 만들어내는 것과 관련한다는 것이다. 창의성은 감수성, 독창성, 융통성, 유연성 등 민감하고 독특하고 유연한 사고 과정을 기본 성격으로 하여 자유로운 모든 생각을 존중하며 개방적인 분위기를 필요로 하고 있다. 미술교육에서 창의성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지도에 의해 효율적으로 계발되어야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제로 받아 들여야 한다.

22) 로웬펠트 등. 앞의 책. p.30.

23) 이규선 외. 앞의 책. pp.43-44.

다. 미술 교육의 수업 환경

인간은 그가 타고난 유전적 조건과 그에게 주어지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성장하고 발달한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인간형성 과정에 환경이 차지하는 비중의 크기는 새삼스럽게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정원식 교수는 교육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환경의 구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²⁴⁾ 그것은 교육과정에서 작용하는 모든 힘은 결국 환경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술 교과 교육에서도 마찬가지로 미술 수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시간적, 공간적, 물질적인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효과적이다.²⁵⁾ 미술교과 학습의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수업의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첫째, 심리적인 환경이다.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학습 분위기와 표현 의욕이 존중되고 창의성을 고무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둘째, 시간적 환경은 학습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하게 주어져야 한다. 준비하고 표현하며 되처리하고 감상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

셋째, 공간적인 환경으로 우선 수업에 필요한 넉넉한 장(場)이 주어져야 한다. 그리고 학습 결과물을 전시하고 감상하며 보관하기도 하는 전시공간과 부속시설이 필요하다.

넷째, 물질적 환경으로는 설비와 재료, 용구를 들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물을 쓸 수 있는 여건이 주어져야 한다. 기타 재료, 용구 및 보관장치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은 미술교과의 수업 효과와 선호도 및 학습 결과와 유기적인 관계에 있어서, 미술교육을 통하여 전인적 인격을 형성하고자하는 궁극적인 교육의 성과를 위해서는 최선의 교육 환경을 보장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24) 정원식의 2인 공저. 「교육 심리학」. 서울: 교육출판사. 1994. p.125.

25) 김춘일. 「미술교육론」. 서울: 홍성사. 1984. p.235.

라. 고등학교 미술교육 과정의 변천

미술교육과정이란 교육의 일반 목표와 미술교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미술교과의 내용을 조직화하고 체계화한 ‘계획된 일련의 학습과업의 체계’이다. 우리나라의 미술교육과정을, 일제의 ‘소학교령’과 ‘한성사범학교 규칙’ 등이 고시된 1895년을 기점으로 하여 한일합방 이후 해방이 되고 6.25 전쟁을 거치는 동안의 제도적 성립기 및 정치적 변환기를 거쳐 1955년 공식적인 교육과정을 고시하고 실시하여 여섯 차례의 개편을 거치고 현재 7차 교육과정을 시행 중인 이른바 체제적 발전기로 나누어, 교육부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2000년)을 통해 정리해 본다.

미술교과 교육과정의 변천 시기는 교육과정 이전의 미술교육, 제1차 교육과정, 제2차 교육과정, 제3차 교육과정, 제4차 교육과정, 제5차 교육과정, 제6차 교육과정, 제7차 교육과정으로 구분되는데, 다음과 같다.

1) 교육과정 이전의 미술교육

우리나라의 근대 미술 교육은 한성 사범학교의 개교(1895)와 교육의 기회가 폭넓게 주어진 소학교령(1895)이 공포된 것에서 그 기초를 찾을 수 있다.²⁶⁾ 또 개화기로 접어들어 과거 경전 중심의 교육을 지양하고 새로운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되면서, 미술과 관련된 교과목인 도화(圖畵)와 습자(習字) 등이 정식 과목으로 채택되었다. 하지만 도화 과목은 형체를 바르게 그리는 능력 함양을 목표로 하여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리거나 임화(臨畵)하는 정도로만 지도하였고 습자 과목은 글씨 쓰는 법을 알고 운필을 익히는 것으로, 한글과 한자가 섞인 문장을 자세, 운필, 속도 등을 강조하여 지도하였다. 이 시기의 미술 교육은 습자 교육보다 중요하지 않게 여겨졌으며 반복 연습을 통한 기능 습득 위주의 교육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후 1905년 을사조약 후에는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일본식 교육이 도

26) 박휘락, 「한국미술교육사」, 서울: 예경, 1995. p.24

입되기 시작하였고, 보통학교령에 의해 구한말의 소학교가 보통학교로, 중학교가 고등학교로 바뀌면서 미술교육에는 습자가 제외되고 ‘수공’ 과목이 첨가되었다. 습자 위주 교육이 좀 더 발전되어진 수공 과목의 도입은 공작 교육에 대한 새로운 발전이었으나, 나무, 대나무, 점토, 종이 등을 중심으로 한 초보적인 수준의 수공으로 학생의 정서 함양이나 창의성을 배제시킨 오직 기능 위주의 미술 교육이었다.

1910년 이후 조선교육령이 공포되고 미술 교육은 도화, 수공의 이름을 지닌 채 획일적으로 계속되었다. 차별화되고 개별적인 특성보다는 오로지 기능교육만이 강조되었던 것이다. 물론 그 이전의 습자 교육에 대한 부수적 교육으로서의 도화교육과는 다르게 발전된 모습이었으나, 이러한 기능적인 수업은 직업 훈련을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서 수공 교육을 강조함으로써 이루어졌다.

1945년 광복이 되면서 서구식 민주주의 교육 사조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군정청에서는 8개의 「교수요목(敎授要目)」을 발행하였으나 미술 교과는 실제적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고, 다만 일제하에서 쓰던 교과서를 한글로 번역하는 정도로 미술 교육이 이루어졌다. 또, 도화, 수공, 습자를 묶어서 처음에는 「도화 공작」으로 교과 명칭을 정했다가, 1946년부터 「미술」이라고 개칭하였다. 이 시기는 일본식 교육에서 서구의 영향으로 명칭의 변경만 있었을 뿐 실제적인 여건과 이론이 일치되지 않는, 미술 교육에 있어서의 혼란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미술 교육은 창조주의적 성향을 기본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기 시작하였다.

미술 교육에 있어 지침서인 교과서조차 편찬되지 못한 채 단순한 기능과 모방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으나, 당시 세계적 추세의 영향으로 미술은 보통 교육과정으로 편성되어 교사의 경험 중심 및 일상생활과 산업에 필요한 조형 감각 중심의 교육으로 발전하게 된다. 19세기에 들어와서 미술은 더 이상 형식적인 영역이 아니며 미적 경험이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다는 듀이(J. Dewey)의 주장, 즉 모든 경험은 잠재적으로 미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견해는 심오한 감상이나 이해가 없이도 ‘미술은 어디에나 있다.’ 등과 같은 생각을 확대시키고 있었다. 경험의 전체성에 대한 그의 견해는 미술을 다른 분야와 통합하도록 이끌었고, 예술을 위한 예술이라는 의식을 무너뜨리며 예술의 개념을 생활 전반에 걸쳐 미적 표현, 미적

창조의 태도를 길러야 한다는 민주적인 방향으로 확대시켰다.

2) 제1차 교육과정 시기

제1차 교육과정 시기는 1954년부터 1963년까지이다. 1954년에 제정, 공포된 「교과 과정」은 1949년에 제정된 교육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이 교육과정은 미국에서 도입된 생활·경험 중심의 교육 이념에 기초한다. 경험 중심의 교육은 일상생활과 산업에 필요한 조형 감각 등을 강조함으로써 미술 영역에 있어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하였다.

과거의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면에 치중되어 있던 미술 교육을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실제 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태도·습관 등을 교육 목표로 강조하였으나, 한편으로는 당시의 사회 환경과 교육 여건이 크게 미흡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 시기에는 중학교의 경우, 미술을 각 학년별로 2단위씩 총 6단위를 이수하도록 하였으나,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미술·음악 중에서 선택하여 3년간 총 4단위를 필수 교과에 넣어 이수하도록 하였다. 특히, 특별 활동 시간을 배당하여 전인 교육을 지향하였는데, 미술에 흥미와 소질을 가진 학생에게는 학교 간의 차이는 있지만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었다.

3) 제2차 교육과정 시기

제2차 교육과정 시기는 1963년부터 1973년까지이다. 제1차 교육과정은 6·25 전쟁 직후에 제정되어, 당시의 혼란한 사회 상태와 여러 가지 제약으로 말미암아 충분한 내용 설정을 못하였다. 이러한 실정에서 문교부가 1958년부터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기초 조사를 하여 오던 중, 5·16을 계기로 하여 종래의 교육을 평가하고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게 되었다. 개편된 미술 교과는 새로운 학설의 도입과 각종 학회를 설립하여, INSEA(국제 미술 교육 협회, International Society for Education through Art)의 서울 대회 개최, 사범 대학의 교육 대학 승격, 각 대학에 미술 교육과 설치와 중학교 무시험 진학, 고등학교 학군제 입학 등 사회 전반에 교육에 대한 커다란 변화를 미치게 되었다.

이 교육과정은 경험 중심 교육과정으로서, ‘교육과정은 곧 학생들이 학교의 지도하에 경험해 오던 모든 학습 활동의 총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경험 여하에 따라 그들이 어떤 인간으로 성장하게 되느냐가 결정된다.’ 라고 교육과정을 정의하고 있다. 내용면에 있어서도 역사적 현실 속에서 사명감을 자각할 것과 생산성·유용성을 강조하여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기능)의 습득과 인격(태도)의 배양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미술교과에서의 교과 목표는 창조성·정서의 육성을 내세웠으나, 일상생활과 관련된 미적 경험을 표현하고 감상하며, 생활을 미화하고 합리적으로 꾸며 나가는 실용주의적이며 합리주의적인 인간 육성에 치우친 감이 있다. 고등학교 미술 시간 배당은 공통 과정으로 미술 I 에 6단위를 배정하였다.

4) 제3차 교육과정 시기

제3차 교육과정 시기는 1973년부터 1981년까지이다. 우리나라 교육과정 제정상 처음으로, 2년간의 실험 평가를 거쳐 교육과정 심의회에서 1971년 1월 시안을 확정된 것을 1973년 2월 14일 문교부령 제310호로 개정, 공포한 것이 제3차 교육과정이다. 종래의 생활 중심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생활 경험이나 흥미를 강조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였다는 반성으로 교육과정을 ‘각 학문 간에 내재해 있는 지식 연구 과정의 체계적인 조직’으로 정의하여, 1960년대에 미국 교육계를 주도한 이른바 학문 중심 교육과정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학문 중심 교육과정은 지금까지 축적해 온 기존 지식의 전수만으로는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증가되어 가는 지식을 이해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지식의 구조를 가르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학생 스스로 발견하고 탐구하도록 한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학문 중심적인 교육과정과 함께 제3차 교육과정의 이념이 된 것은 이미 1968년 12월 5일에 선포된 국민 교육 헌장 이념이다. 헌장에 나타난 교육의 지표인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개인 윤리면), 협동 정신(사회·도덕적 윤리면), 국민 정신(국민 윤리면)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 미술과 교

육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민족 미술을 소홀히 다루어 온 점, 국가 발전 추세에 부합되는 목표 및 내용 선정에 대한 필요성, 기술 교과와의 내용 중복을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구분의 필요성 등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하여 내용의 체계와 구조를 세우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또, 심상 표현과 함께 적응 표현을 강조하여 디자인, 공예 교육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

5) 제4차 교육과정 시기

제4차 교육과정 시기는 1981년부터 1987년까지이다. 제4차 교육과정은 1981년 12월 31일 문교부 고시 제424호로 개정되어 한국 교육 개발원에 위탁하여 만든 기초 연구와 총론, 각론, 시안을 개발토록 하여 연구 개발형(R & D)의 성격을 띤 것이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또, 당시는 1980년 새 공화국 출범을 전후하여 정치 및 사회적 특수 상황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고려하여, 새로운 교육적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대두되어 이에 적절한 새 교육과정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이렇게 마련된 제4차 교육과정의 이념이나 사조는 어느 한 사조나 이념만을 반영하는 교육과정 이 아닌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을 지는 것이었지만, 종래의 교과 중심, 경험 중심, 학문 중심의 바탕 위에 변화와 미래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는 미래 지향적 교육과정의 정신이 반영되었다.

또한 지금까지 소홀히 여겼다고 볼 수 있는 인간 중심 교육과정으로서의 성격도 반영되어 개인적, 사회적, 학문적 적합성을 고루 갖춘 교육과정이 되게 하였다.

제3차 교육과정의 학습량 과다, 학습하기 어려운 교육 내용, 교과목 위주의 분과 교육, 기초 교육 및 일반 교육의 소홀, 전인 교육의 미흡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특히 지적 학습으로 인하여 정의적인 영역의 학습이 소홀했다는 반성으로, 건강한 사람, 심미적인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도덕적인 사람, 자주적인 사람을 기르기 위한 전인 교육을 강조하였다.

미술과에서는 첫째, 미적 경험을 통한 국민 정신 교육을 강조하였고, 둘째, 표현을 통한 창의성 계발을 위한 자율성·상상력·탐구적 태도를 강조하였으며, 셋째, 미적 정서를 강조하여 심미적 심성이 개발되도록 하였

다. 넷째, 교육의 효율성을 강조하여 학생들의 발달 단계와 미적 경험에 맞는 내용을 정선하여 체계화하였으며, 다섯째, 미술의 여러 가지 면모를 폭넓게 경험하도록 포괄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기본 방향 아래 표현 및 감상 활동을 통하여 미적 정서와 창조성을 길러 인격을 함양하고, 우리의 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국민적 자질을 육성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따라서, 학습 내용이 행동화되고 개방화되면서 미술 교육이 서서히 성숙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6) 제5차 교육과정 시기

제5차 교육과정 시기는 1987년부터 1992년까지이다. 1987년 개정된 제5차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적정화, 내실화, 지역화를 개정의 방침으로 정하여, ‘종래의 교과 중심, 생활 중심, 학문 중심, 인간 중심 교육과정의 장점을 조화 있게 체계화하여 미래 사회를 주도할 건강하고, 자주적·창조적·도덕적인 한국인을 육성한다.’ 라는 기본 방향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미술과에서는 첫째, 교과 목표 및 지도 내용, 지도 및 평가상의 유의점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개선의 방향을 구체화시키며, 둘째, 명문화된 교육과정의 진술에서 그 내용 및 의미 전달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개선의 방향을 마련하고, 셋째, 미술과의 목표가 현대 미술의 흐름에 부합되고 한국적 교육 이념의 구현에 적절하며 미래를 지향하는 인간성의 목표가 뚜렷하게 부각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이와 같은 방향에서 교과 목표는 초·중·고등학교 공통으로 ‘조형 활동의 경험을 통하여 표현 및 감상 능력을 길러 창조성을 계발하고 정서를 함양’ 하는 데 두었고, 학년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미술의 세분화된 영역을 통합시켜 표현과 감상 활동으로 크게 나누어 제시하였다. 또, 주체적인 문화 의식을 심어 주기 위해 우리나라의 전통 미술을 강조하였다. 미술과의 시간 배당은 공통 필수 과목으로 4단위(실업계, 기타계, 일반계 직업 과정은 미술·음악 중 택일하여 2단위)를 배정하였다.

7) 제6차 교육과정 시기

제6차 교육과정 시기는 1992년부터 1997년까지이다. 과거의 교육과정이 시대적, 학문적, 개인적 변화와 요구에 따라 개정되었다면, 제6차 교육과정은 20세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개정되었다. 21세기를 주도할 건강하고 자주적이며 창의적이고 도덕적인 한국인의 육성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도덕성과 공동체 의식이 투철한 민주 시민의 육성,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인 능력 개발, 학생의 개성·능력·진로를 고려한 교육 내용과 방법의 다양화, 교육과정 편성·운영 체제 개선을 통한 교육의 질 관리의 강화를 개정의 방침으로 하고 있다.

미술과는 미적 교육의 정신을 반영하여 미술의 본질적 기능을 회복시키면서 미술을 통한 인간 형성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전인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감상, 창조, 개성 교육을 더욱 강조한다. 둘째, 미술과 생활의 밀접한 관련 속에서 감성적 체험을 강조한다. 셋째, 중학교 교육과의 지속성을 살리면서 전문적인 미술 내용의 체계를 이해하도록 구성한다. 넷째, 미술과 교육 내용을 보다 구체화, 체계화한다. 다섯째, 미적 감성을 계발하고 미적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하여 표현 활동과의 연관성을 살린 감상 지도에 유의한다. 여섯째, 우리나라의 전통 미술을 이해하고 계승·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전통 미술 지도를 강화하며, 지역 사회의 전통 미술에도 관심을 가지도록 한다. 일곱째, 지도 방법이나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나 제시를 통하여 현장에서의 운영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8) 제7차 교육과정 시기

제7차 교육과정 시기는 1997년부터 현재까지이다. 1997년 12월 30일자로 제 7차 미술과 교육과정이 개정, 고시되었다. 이것은 미술과 교육의 새로운 변화, 사회 여건의 변화, 교육 이론의 발전, 현재의 미술과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등을 고려한 주기적인 개정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

향에 중점을 두어 이루어졌다.

첫째, 미술과 교육과정의 기본 개발 방향은 제 7차 교육과정 개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미술과 총괄 목표는 미술 활동을 통하여 표현 및 감상 능력을 기르고, 창의성을 계발하며, 심미적인 태도를 함양하는데 두었다. 세부적인 하부 목표로는 내용 영역과 관련 지어 1) 미적 대상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다(미적 체험 영역과 관련), 2)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표현 영역과 관련), 3) 미술품의 가치를 판단하고, 미술 문화 유산을 존중할 수 있다(감상 영역과 관련)의 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둘째,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을 하나의 체제로 보고 미술과 교육과정을 일관성 있게 구성하고자 하였다. 즉, 국민공통기본교육 기간인 10년을 하나의 체제로 보고 학교급별 차이에 따른 연속성이 나 연계성 부족을 극복할 수 있는 내용 구성을 고려하였다. 이를 위해 미술과 교육 목표는 미술 교육을 받은 학습자가 고등학교 1학년을 마쳤을 때 성취해야 할 능력으로 진술하였으며, 내용의 영역 및 영역별 세부 내용 역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같은 체제로 구성하였다.

셋째, 개성, 창조, 정서 교육으로서의 미술 교과 성격을 더욱 강조하고자 하였다. 미술과 교육의 특성을 최대한 살릴수 있는 교육과정을 구성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자신과 주변 세계를 내면적으로 의식하는 일상적인 미적 체험을 강조하며, 이러한 체험 세계를 표현하고, 표현한 것을 감상하는 활동을 통해 미처 감득하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고 또 다른 미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넷째, 내용 구성에 있어서 필수 학습 요소 및 활동을 중심으로 정선하여 학습 분량을 최적화하고 수준과 범위를 적정화하고자 하였다. 즉, 미술과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반드시 학습해야 할 내용을 정선하여 구조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학습자 중심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습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조정하였다. 이를 위해 3가지 내용 영역(미적 체험, 표현, 감상)을 설정하였는데, 특히 표현 영역은 어떤 형식과 장르의 미술을 지도하더라도 반드시 배우거나 다루어야 할 기본 구조인 주제 표현, 표현 방법, 조형 요소와 원리, 표현 재료와 용구의 4가지 틀로 구성하였다.

다섯째, 내용 구성에서 필수 학습 요소 및 활동의 계속성, 계열성, 통

합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국민공통교육기간에 학습해야 필수 학습 요소 및 활동들은 학년 군별로 연속성이나 연계성을 고려하고, 실제 학습에서 각 요소와 활동들이 유기적인 관련 속에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미술 교과는 초등학교 3·4학년,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2·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의 4단계 군으로 구성하며 그 내에서의 내용 수준과 범위를 제시함으로써 학습 내용의 반복을 줄이고 학습량을 적정화하며 신축적인 내용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여섯째, 생활과의 관련 속에서 학습자의 관심, 흥미, 필요, 요구를 반영하며, 나아가 미술을 생활화하고자 하였다.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 흥미와 관심, 적성, 진로 등을 고려한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배려하며, 학습자의 생활과 관련된 미술 활동을 계획함으로써 미술에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생활과 밀접한 미적 체험, 풍부하고 다양한 미적 체험을 제공해 줌으로써 미술을 생활화하고자 한 것이다.

일곱째, 세계화 시대에 대비하여 우리 미술 문화에 대한 주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전통 미술을 강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 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려 하였다. 즉, 우리의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를 시대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조형적 특성을 파악하며, 미적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주체성을 가진 세계 이해 교육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여덟째, 미적 감수성 및 가치관 확립을 위하여 감상 교육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초등학교 미술과 교육에서는 미술에 대한 개인적인 반응을 격려하며 미적 판단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기초를 다짐으로써 감상 교육을 강조하였고, 중·고등학교 미술에서는 점차 그 수준과 내용의 폭을 확대하여 미술문화 유산의 이해적인 측면과 다양한 시각에서 미술품을 감상하고 비평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였다.

아홉째, 정보화 시대의 변화에 대처하며 효율적인 교수·학습을 위하여 교수·학습 방법의 다양화를 꾀하고자 하였다. 창의력, 문제해결 능력, 상상력, 자신감, 변화에 대한 적응력, 정보의 수집, 활용 및 창조 능력 등을 기르기 위해 표현과 함께 조사, 탐색, 감상, 발표, 토론 등 다양한 유형의 교수·학습 활동을 통한 지도를 강조하였고, 아울러 교과용 도서를 보완하며, 감각 기능을 강화하고, 교수·학습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인터

넷, 사진, 슬라이드, VCR, TP, 화집 등 다양한 매체와 자료를 활용할 것을 강조하였다.

열 번째, 미술과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유형의 평가 방법을 활용하고, 학생간의 상호 비교가 아닌 계획된 학습 목표에 비추어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평가결과는 개별 학생들에 대한 보다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3. 현대 미술 교육의 동향

현재 우리나라 미술교과 교육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배적 연구동향은 창의성 중심연구, 미술이해중심연구, 다문화 중심연구의 세 가지로 구분되고 있다. 여기에서 각각의 연구 경향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세 가지 연구 경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미술과 교육의 현재 상황을 절충적인 모습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향들의 출발이 한국적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된 것이 아니며, 현재 각각의 입장에 대한 학계에서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정착과 수용 과정에서 각각의 입장들이 변형 또는 혼합되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²⁷⁾

첫 번째는 기능 중심의 미술 교육을 대체하면서 잠재적 창의력, 정서적 성장을 강조하는 창의성 중심의 연구들이다. 두 번째는 창의성 중심에 반발하며 등장한 미술 이해 중심의 DBAE(Discipline-based Art Education)에 기초한 연구들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원주의 시각에 기초한 다문화 중심의 연구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 경향이 오늘의 우리나라 미술 교육계에서는 변형되거나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필요에 따라 절충되는 과정으로 보여진다.

1) 창의성 중심의 미술 교육 동향

창의성 중심의 미술 교육은 1900년대의 구조와 형식에 대한 반발에서 시작되었다. 1920년대 자기감정과 창의적 표현을 중시하는 자기표현 중심

27) 박소영. 미술과 교육의 동향 및 교육과정. 교육광장 13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2.06.

의 접근은 자유 표현, 자아실현을 강조한 치첵(Cizek)에 의해 미술 교육에서의 학습자 중심지도 방법, 자유로운 창작 지도를 강조하는 새로운 시도로 나타났다. 제 2차 대전 이후 자기표현, 정서적 성장에 대한 관심은 로웬펠드(Lowenfeld)와 리드(Read) 등으로 이어지면서 연구의 시각도 다양해졌다.

특히 로웬펠드는 미술의 표현 발달 단계를 정립하였으며, 다양한 동기 유발, 경험 제공, 재료 제시 등이 어린이의 자연스러운 성장과 발달을 촉진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 학교에서의 근대 미술과 교육은 1895년 기능 중심의 교육으로 시작되었으나 일제 강점기 이후 교육과정개정을 거치면서 창의성 중심의 미술 교육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학생의 잠재적 창의력, 정서적 성장을 강조하는 인성 교육으로서의 창의성 중심 미술 교육은 이론적 연구나 현장에서의 실천에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지금까지 주도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기초한 미술과 교육의 연구와 실천은 창조적 또는 창의적 표현 능력, 개성, 자기표현 능력, 자아실현 등을 내세우며 이러한 능력의 신장, 향상, 발달을 이루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프로그램 개발로 이어졌다.

이론적 연구 역시 미술 교육이 창의성을 계발하고 향상시키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주장을 펼쳤고, 과정을 결과보다 중요하게 여기면서 결과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격려와 조언을 제공하는 교사의 역할이 강조되었고, 어린이 미술에 대한 관심으로 어린이들의 세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갔다. 이 과정에서 로웬펠드나 리드의 연구를 토대로 어린이들의 자연스러운 미적 성장을 확인하거나 이를 이론적 배경으로 삼는 연구들이 다방면에서 이루어졌다. 미술 수업에 다양한 재료와 활동이 포함될수록 좋은 수업이고, 이러한 수업을 계획하는 교사가 훌륭한 교사로 여겨졌으며, 학생들에게 얼마나 다양한 재료를 경험시키고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가가 주요한 논의 대상이었다.²⁸⁾

28) 박소영. 위의 책. p.35

2) 이해 중심의 미술 교육 동향

미술 교육자 바칸(Barkan, 1966)은 ‘학문 분야’로서 미술을 강조하기 위해 새로운 미술 교육의 개념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은 학문 중심 또는 이해 중심 미술 교육의 기초가 되었다. 1980년대 다시 시작된 교육의 질과 효율성에 대한 논의는 1960년대의 수학, 과학과 같은 특정 교과에 한정되었던 것을 인성과 예술까지 포함하는 교육과정 전체로 확대되었다.

미술 교육에서의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의 게티 센터(Getty Center)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아이스너(Eisner), 윌슨(Wilson), 펠드만(Feldman), 그리어(Greer), 브라우디(Broudy) 등은 DBAE의 모체가 되는 이해 중심 미술 교육의 이론을 발전시켰으며, 그리어는 30여 년 간에 걸쳐 이루어진 연구들의 공통된 특징을 찾아 DBAE라고 명명하였다. DBAE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였다. 첫째, 미술 창작을 넘어 다양한 미술 활동이 있다는 것을 환기시키고 이를 제안하였다. 둘째, 4가지 영역의 미술 전문가들 즉 미술가, 미술사가, 미술 비평가, 미학자의 구체적인 탐구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미술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에 대한 이해와 미술에 대한 폭넓은 인식을 제공하였다. 셋째, 다른 교과와의 통합을 강조하는데, 특히 학생들의 실생활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미술과 통합하여 효과적인 학습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80년대 미국에서 등장한 DBAE가 1990년대 소개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학문 또는 이해 중심적인 연구 경향을 불러 일으켰다. 1990년대 제 6차,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성 중심에서 기초적 이해를 토대로 한 미적 인식 능력, 창의성, 비판적 사고력 그리고 미술 교과 자체의 본질적인 측면을 강조하며 미술의 다양한 영역(미학, 미술사, 미술 비평, 미술 창작)의 학문적 체제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6차에서는 생활과 함께하는 미술로서의 ‘미술과 생활’ 영역을 제시하면서 미학을 도입하였고, ‘감상’ 영역에서는 미술사와 함께 미술 비평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제7차 개정 역시 ‘미술과 생활’을 폭넓은 의미의 ‘미적 체험’ 영역으로 제시하면서 미학과 미술 비평, 창작, 미술사를 포괄하는 체험을 강조하였다. ‘표현’ 영역에서는 ‘표현 주제, 표현 방법, 조형 요소와 원리, 표현 재료와 용구’라는 틀에 기초하여 구조적인 접근을 시도하였고, ‘감상’

영역에서는 미술사와 미술 비평의 체계적인 접근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제6차 개정을 기점으로 창의성 중심 미술 교육에서 미술의 이해를 강조하는 DBAE를 접목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7차 개정을 통해 미술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는 쪽으로 그 비중이 옮겨가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DBAE에 기초한 미술과 교육의 연구와 실천은 창조적 또는 창의적 표현력, 개성, 자기표현, 자아실현 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체계적인 접근과 프로그램 개발을 내세웠다. 미술은 독자적인 학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창작 능력뿐만 아니라 미적 인식 능력과 비평 능력을 길러줄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능력을 길러 주기 위해서는 교사의 적극적인 준비와 계획, 역할이 요구되었고,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과정뿐만 아니라 결과에 대한 평가 역시 강조되면서 평가에 대한 연구가 확대되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재료와 활동에 대한 경험이 중요한가, 질적인 하나의 경험이 중요한가에 대한 논의가 생겨났으며, 미술 언어로서의 조형 요소와 원리에 대한 체계적 지도, 개념을 강조하는 프로그램 개발 등이 이루어졌다.²⁹⁾

3) 다문화 미술 교육

1970년대 이후 서구 미술계에서는 모던 미술 개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자율적인 주체에 의한 자기표현과 새로운 양식의 끊임없는 탐구를 통해 지키려했던 미술의 순수성이 거부되었다. 모더니즘 미술에 의문을 제기하며 등장한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의 사회 문화에 대한 확대된 시각은 가치의 다원주의로 나타났다.

새로운 가치 지향은 지금까지 소외되어왔던 다양한 계층, 성, 지역 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왔다. 무엇보다도 모더니즘 미술에 의해 평가절하되었던 대중 미술, 대중문화가 부각되었고, 심지어 고급 미술과의 구별 자체가 무의미해졌다. 차별이 아닌 차이로서 문화를 보고자 하는 시도는 한 가지 시각이 아닌 다양한 시각을 인정하게 되었으며, 미술에서 지배적이었던 남성, 백인, 서구 중심의 사고를 해체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

29) 박소영. 위의 책. p.36

적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변화에 의해 나타나고 있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복잡하고 다원적인 문화 현상들은 모더니즘에 근거한 미술 교육이 지향했던 가치와 그 결과들에 대하여도 의문을 제기하였다.

다문화 미술 교육에 대한 관심은 1980년대 이후 부분적으로 논의되어 오다가 1990년대 이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서구 중심의 모던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다양성 그 자체를 인정하려는 세계화 현상과 맞물려 미술 교육에서의 다문화 교육으로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다문화 미술 교육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나타나기 시작하여 DBAE와 다문화 미술교육의 접목, 다문화 미술 교육의 배경이 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다원주의에 대한 이해, 다문화 미술 교육을 위한 지도의 방향과 지도안 또는 프로그램 개발 등 문화 교육에 대한 관심과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폭을 넓혀가고 있다.³⁰⁾

4) 절충적인 움직임

오랫동안 창의성 중심의 미술 교육에 대해 별다른 이견과 쟁점 없이 이어져오던 우리나라의 미술 교육은 합리적이고 구조적인 DBAE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특히, 미술 교육의 창작 측면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미술 이론 측면에서 이루어진 내용의 구조화는, 교육 현장에서 기존의 것에 새로운 것을 덧붙이는 절충적인 모습으로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변화를 표면적이거나 수용하고자 하는 과도기적 사례라 할 수 있는데, 진정한 미술 교육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의 혼합이며, 다양한 시각에 대한 경험이라 할 수도 있다.

포스트모던 사회 문화로의 이행에 대한 자각, 강하게 제기되는 다문화 교육에 대한 반영, 창의성 중심의 미술 교육과 더불어 모처럼 새롭게 부각된 미술 교육 이론인 DBAE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움직임 등이 자연스럽게 한국 미술 교육계에서의 이론적 변형과 절충, 다양한 시각의 병행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30) 박소영. 위의 책. p 37

Ⅲ. 분석모형 및 조사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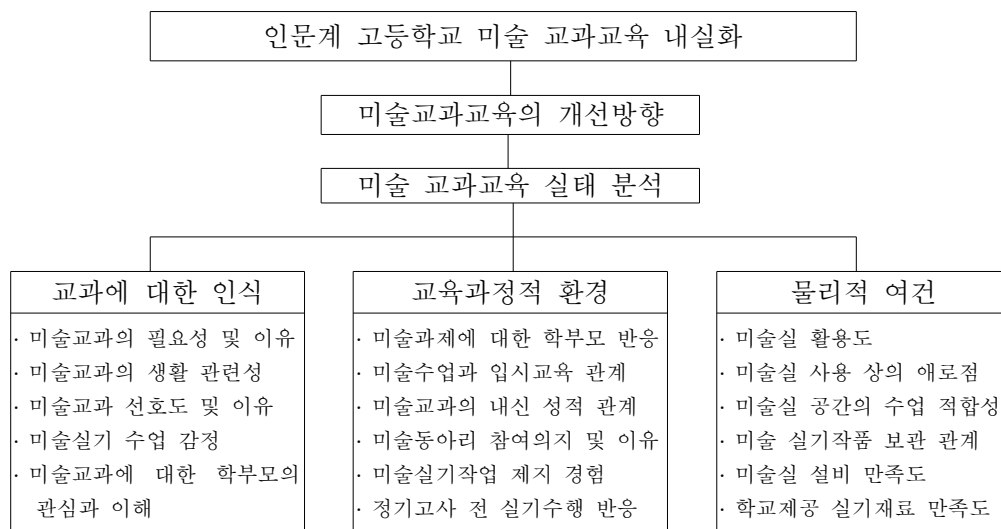
1. 분석 모형

우리나라의 미술교육은 사회 변화와 발맞추어 꾸준히 변모해왔지만 고등학교 이상의 교과과정 내에서는 소수만을 위해 존재하는, 의미를 상실한 교육과정이라는 비판이 오래되었다.

현재 제7차 교육과정은 창의성 교육이라는 틀과 지적 통찰을 바탕으로 한 교육(DBAE)이라는 이념 하에 새로운 형태의 미술교육을 적극적으로 도입·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은 미술학원에 밀려 미술교육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대학 입시가 지상 과제인 인문계 고등학교 미술교육의 효용성은 여전히 평가 절하된 상태에서 회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술교육의 의의와 성격을 비롯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미술교과에 대한 인문계 남녀 고등학생의 기본 인식을 조사하고 입시교육에 떠밀려 본 모습을 잃은 수업환경과 물리적 수업 여건을 파악해 미술 교육의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수업 환경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분석 모형은 <그림1>과 같다.



<그림 1> 연구를 위한 분석 모형

2. 조사 설계

가. 조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울산 시내 10개 학급 이상으로 구성된 인문계 남자고등학교, 인문계 여자고등학교, 인문계 남녀공학고등학교 각 1개 학교의 10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3개 학급씩을 표본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조사 기간 및 방법

설문 조사 기간은 2006년 9월 4일부터 9월 18일까지였으며 조사 방법은 설문 조사에 흔쾌히 조력을 표시한 시내 인문계 남자고등학교 1개교와 여자고등학교 1개교, 남녀공학고등학교 1개교의 미술교사에게 7차 교육과정 10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3개 학급(남녀공학고등학교는 남, 여 각 3개 학급)의 학생들로부터 작성된 설문지를 직접 받는 형식으로 실행되었다.

다. 조사도구 및 내용

본 연구에서는 인문계 고등학교 수업 환경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봄으로써 입시교육에 떠밀려 본래의 수업목표를 잃은 채 교육현장에서 간과되고 있는 미술교육의 내실화 방안을 모색해 보기 위한 질문 자료를 구성하고, 질문지를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조사의 내용은 미술교과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묻는 항목으로 미술교과 수업의 필요성, 미술교과 수업이 필요한 이유, 미술교과 수업과 일상생활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 정도, 미술교과에 대한 학생의 선호도, 미술교과를 좋아하는 이유, 미술교과를 싫어하는 이유 미술교과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과 이해 정도가 있다.

입시교육과 관련된 미술교과 교육 내용을 묻는 항목으로는 학생의 미술과제 수행에 있어서의 학부모 반응, 미술 이론 수업과 입시 교육의 연관성 인식도, 내신 성적과 관련한 학생의 미술 점수에 대한 관심도, 미술동아리에 대한 참여 의지, 미술동아리 참여의지가 약한 이유, 미술실기 작

업을 제재당한 경험 유무, 정기고사를 앞두고 미술 실기 수행평가를 할 때의 느낌에 대한 것이 있다.

미술교과의 물리적 여건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항목으로 미술실 활용 정도, 실기실 사용 시 불편한 점, 미술실 공간의 실기수업 적합성, 미술 실기 작품 보관 장소, 미술실 설비에 대한 만족도, 실기재료에 대한 만족도를 물었다.

마지막으로 미술교육 개선방안에 대한 항목은 현재 수업 현장에서 논란 내지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 현안들로 개선 방안이 필요한 항목들이다. 미술교육의 목표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조건, 7차 교육과정 10학년에 배당된 시수에 대한 생각, 미술교과에 필요한 주당 수업시수, 미술수업을 통해 얻고 싶은 정보, 통합교과적 차원에서의 미술교과 보충수업의 필요성, 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첨단교구 확충의 필요성이다.

3.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분석과 교차 분석을 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성별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χ^2 (Chi-square)검증을 실시했으며, 유의수준 0.05, 0.01, 0.001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IV. 조사 결과 분석 및 논의

본 장에서는 앞에서 밝힌 연구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수행된 조사 연구의 결과를 분석하고 해석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기초 조사를 통해 알아본 울산 시내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성별을 변인으로 보고 항목별로 상관 관계를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는 학교유형별로는 남자고등학교 94명(22.8%), 여자고등학교 114명(27.4%), 남녀공학고등학교 414명(49.8%)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202명(48.8%), 여학생이 212명(51.2%)로 나타났다.

2. 조사 분석 결과

미술 교육과정의 실태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은 미술교과에 대한 인식, 입시 교육과 관련한 미술교육과정에 대한 의식, 미술교과의 물리적 여건, 미술교육 개선 방안에 대한 것으로 영역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가. 미술 교과에 대한 인식

1) 미술교과 수업의 필요성

제7차 교육과정 10학년(고1)의 미술교과 수업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어떠한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미술교과수업에 대한 인식으로는 미술교과수업의 필요성(37.7%), 보통(34.5%), 필요없음(27.8%) 순으로 응답하였다.

성별로 보면, 미술교과 수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학생(48.6%)이 남학생(25.2%)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인식하는 미술교과수업 필요성에 대해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이 보다 높게 인식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가 있다. 실제 교실 현장에서 관찰되는 예능 교과에 대한 관심도 여학생들이 월등하고 수업에 임하는 태도나 과제를 수행하는 정도도 더 적극적이란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표 1> 미술교과 수업의 필요성

명(%)

구 분		매우 필요하다	약간 필요하다	보통이다	거의 필요없다	전혀 필요없다	전체	χ^2 df p
성 별	남학생	13(6.4)	40(18.8)	74(36.6)	39(19.3)	36(17.8)	202(100.0)	44.075 4 .000 ***
	여학생	28(13.2)	75(35.4)	69(32.5)	37(17.5)	3(1.4)	212(100.0)	
	전체	41(9.9)	115(27.8)	143(34.5)	76(18.4)	39(9.4)	414(100.0)	

*** $p < .001$

2) 미술교과 수업이 필요한 이유

미술교과 수업의 필요성을 느끼는 응답자에 한해 미술교과 수업이 필요한 이유를 질문한 내용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2>와 같다.

전체적으로 ‘창의력 배양에 필요하므로’ (42.6%), ‘정서 함양에 도움을 주므로’ (28.2%), ‘생활에 도움을 주므로’ (14.4%), ‘기타’ 응답 (9.7%), ‘수능 시험에 출제되므로’ (5.1%)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았을 때 남학생은 ‘창의력 배양’ (47.1%)에 대한 견해가 압도적이었으나 여학생은 ‘창의력 배양에 필요하다’ (39.5%)와 ‘정서함양에 도움을 준다’ (33.3%)는 응답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로 보았을 때 통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1$). 또한 수능 시험에 간혹 출제되는 것에 대해서 응답 비율이 가장 낮았으나 남녀학생 간의 차이는 다소 있어서 남학생(9.2%)이 여학생보다(2.3%) 수능 시험과 연관해 필요성을 느끼는 더 느끼는 것이 확인되었다. 여학생은 미술교과의 필요성을 정서 함양과 연관 지워 생각하는 비율이 상당 부분 있지만 남학생은 창의력 배양이나 시험 관련으로만 그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표 2> 미술교과 수업이 필요한 이유

명(%)

구 분		정서함양 에 도움	생활에 도움	창의력 배양에 필요	수능시험 에 출제	기타	전체	χ^2 df p
성 별	남학생	18(20.7)	8(9.2)	41(47.1)	8(9.2)	12(13.8)	87(100.0)	13.641 4 .009 **
	여학생	43(33.3)	23(17.8)	51(39.5)	3(2.3)	9(7.0)	129(100.0)	
	전체	61(28.2)	31(14.4)	92(42.6)	11(5.1)	21(9.7)	216(100.0)	

** p<.01

3) 미술교과 수업과 일상생활의 관련성 인식

미술 교과 수업이 일상생활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미술교과 수업과 일상생활의 관련 정도에 대한 응답은 보통(45.3%), 적다(27.8%), 많다(26.9%)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녀 학생 모두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다음으로 남학생은 적다(35.8%), 많다(20.3%), 여학생은 많다(31.1%), 적다(20.3%)로 답해 성별로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1).

이러한 결과는 생활주변에서 심미적인 면을 찾고 가꾸는 여성적인 특성과 관련하여 학교 미술 수업에서 습득한 내용을 실생활에 활용하는 여학생들이 평소에도 상당수 발견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표 3> 미술교과 수업과 일상생활의 관련성

명(%)

구 분		매우 많다	많다	보통이다	적다	매우적다	전체	χ^2 df p
성 별	남학생	9(4.5)	36(17.9)	84(41.8)	49(24.4)	23(11.4)	201(100.0)	15.479 4 .004 **
	여학생	16(7.5)	50(23.6)	103(48.6)	35(16.5)	8(3.8)	212(100.0)	
	전체	25(6.1)	86(20.8)	187(45.3)	84(20.3)	31(7.5)	413(100.0)	

** p<.01

4) 미술교과에 대한 선호도

미술교과에 대한 학생 자신의 선호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4>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보통 (40.1%), 높다 (30.0%), 낮다(29.9%)이나 성별로 살펴보았을 때는 여학생의 선호도가 37.2%로 남학생(22.3%)보다 훨씬 높으며 ‘낮다’로 응답한 비율은 여학생이 23.2%, 남학생이 37.1%여서 남 여학생의 선호도가 대비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 < .001$)

이러한 통계가 주는 시사점은 미술교과에 대한 학생의 선호도는 남녀 학생 모두 ‘보통’이 가장 비율적으로 높아 인문계 고등학교 입시 위주의 교육 현장에서는 실기 수행평가에 걸리는 시간과 수학능력고사와 직결되지 않는 교과라는 점이 이러한 결과에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응답자 가운데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선호도가 훨씬 높다.

<표 4> 미술교과에 대한 학생의 선호도

		명(%)						
구 분		매우 높다	높다	보통이다	낮다	매우 낮다	전체	χ^2 df p
성 별	남학생	18(8.9)	27(13.4)	82(40.6)	39(19.3)	36(17.8)	202(100.0)	22.591 4 .000 ***
	여학생	23(10.8)	56(26.4)	84(39.6)	37(17.5)	12(5.7)	212(100.0)	
	전체	41(9.9)	83(20.0)	166(40.1)	76(18.4)	48(11.6)	414(100.0)	

*** $p < .001$

5) 미술 교과를 좋아하는 이유

미술교과를 좋아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에 대하여 그 이유를 묻는 설문에 응답한 결과는 <표5>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실기 시간이 많아서’, ‘교과 내용이 재미있어서’, ‘학습 내용이 어렵지 않으므로’, ‘평가에 대한 부담이 적은 편이라서’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성별로 보았을 때 남,여 학생 모두 미술교과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로 ‘실기 시간이 많아서’에 응답하였는데 그 비율은 남학생은 31.6%, 여학생은 45.5%로 남, 여학생 간에 상당히 차이가 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p<.001$). 그 다음으로는 여학생은 교과 내용이 재미있다(33.7%)는데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남학생은 학습 내용이 쉬워서(21.1%)로 답해, 여학생은 실기를 좋아하고 교과내용이 재미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남학생은 실기는 좋지만 교과 내용이 재미있다고는 학습 내용이 쉽고 평가에 대한 부담이 적어서³¹⁾ 미술 교과를 좋아하는 경우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5> 미술교과를 좋아하는 이유

명(%)

구 분		실기시간 이 많아서	내용이 재미있음	학습내용 이 쉬움	평가부담 적음	기타	전체	χ^2 df p
성 별	남학생	24(31.6)	12(15.8)	16(21.1)	13(17.1)	11(14.5)	76(100.0)	20.447 4 .000 ***
	여학생	46(45.5)	34(33.7)	8(7.9)	6(5.9)	7(6.9)	101(100.0)	
	전체	70(39.5)	46(26.0)	24(13.6)	19(10.7)	18(10.2)	177(100.0)	

*** $p<.001$

6) 미술교과를 싫어하는 이유

미술 교과를 싫어한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6>과 같다.

전체적으로 ‘실기 평가에 대한 부담’에 응답한 비율이 50.6%로 압도적이고 다음으로 대학입시와 관련이 적어서, 실기시간과 준비물 때문에 싫다는 순서로 응답하였다.

성별로는 실기 평가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비율이 여학생은 57.4%, 남

31) 미술교과의 평가는 실기가 대략 2/3정도를 차지하고, 수행 평가의 경우에는 수행 과정에 대한 기본 점수가 부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다른 교과목에 비해서 평가에 대한 부담을 적게 느낀다고 진술하는 학생도 많다.

학생은 46.0%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대학입시와 관련이 적다는 이유로 싫어하는 비율도 남학생(24.0%)과 여학생(13.2%)간에 역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p < .001$)

이 결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여학생들은 내신 성적과 관련된 실기 수행평가에 상당수가 신경을 쓰는 편이고, 반대로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실기평가를 덜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내신 성적에는 덜 민감하고, 남학생은 입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교과과정을 수행할 것이라는 유추가 가능하다.

<표 6> 미술교과를 싫어하는 이유

								명(%)
구 분		실기시간 많아서	실기 준비물 있어서	실기평가 대한부담	대학입시 와 관련이 적어서	기타	전체	χ^2 df p
성 별	남학생	7(7.0)	6(6.0)	46(46.0)	24(24.0)	17(17.0)	100(100.0)	22.591 4 .000***
	여학생	4(5.9)	5(7.4)	39(57.4)	9(13.2)	11(16.2)	68(100.0)	
	전체	11(6.5)	11(6.5)	85(50.6)	33(19.6)	28(16.7)	168(100.0)	

*** $p < .001$

7) 미술 실기 수업 시의 느낌

<표7>은 미술 실기 수업을 받을 때의 느낌을 질문한 내용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표현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속이 상한다’, ‘점수 때문에 할 수 없이 한다’, ‘즐거운 기분으로 안정된 정서를 느낀다’, ‘남보다 잘 하고 싶은 경쟁심이 생긴다’, 순으로 응답하였다.

성별로는 여학생의 경우, ‘표현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속 상한다’의 응답 비율이 35.2%로 가장 높고 남학생은 ‘점수 때문에 할 수 없이 한다’는 비율이 33.2%로 높았다.

또한 즐거운 기분으로 안정된 정서를 느낀다는 응답 비율도 여학생(31.4%), 남학생(16.8%)간에 격차가 있었으며 반면에 경쟁심이 생긴다는 응답에는 남학생이 17.3%로 여학생(9.5%)보다 훨씬 높았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여학생은 즐거운 기분으로 안정된 정서를 느끼며 표현에 대한 진지한 욕구를 가지는 경우가 많은 반면, 남학생은 점수 때문에 경쟁적인 태도로 실기 수업에 임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실기 평가 후에 점수에 이의를 제기하는 학생들을 보면, 여학생은 작품을 아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 작품에 대해 그에 상응한 평가를 기대하는 반면, 남학생은 경쟁대상의 작품보다 나은 점수만을 무조건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표 7> 미술 실기수업을 받을 때의 느낌

명(%)

구 분		안정된 정서	속이 상하다	경쟁심이 생김	할수없이 함	기타	전체	χ^2 df p
성 별	남학생	34(16.8)	53(26.2)	35(17.3)	67(33.2)	13(6.4)	202(100.0)	24.582 4 .000 ***
	여학생	66(31.4)	74(35.2)	20(9.5)	42(20.0)	8(3.8)	210(100.0)	
	전체	100(24.3)	127(30.8)	55(13.3)	109(26.5)	21(5.1)	412(100.0)	

*** $p < .001$

8) 미술교과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과 이해

부모님의 미술 과목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는 어떠하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한 결과는 <표8>과 같다.

전체적으로 낮다, 보통, 높다의 순으로 응답했으며 남학생 부모님이 여학생 부모님보다 관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실제로 미술에 소질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부모님의 관심이나 지원 상황을 보면 여학생 학부모는 비교적 적극적인 반면, 남학생 학부모는 전공하는 것을 반대하거나 지원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

미술교과교육을 통해 미래의 미술전문가가 발굴되기도 하고, 일반 학습자는 주지교과 위주의 편중된 학습 결과로 논리적·이성적 사고만 비대해지지 않도록, 정서 함양과 창의력 배양이 같이 추구되는 균형적 교육을 추구해야한다는 차원에서 미술교과 교육에 대한 부모님의 관심과 이해가 요구되는 바이다.

<표 8>미술 교과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과 이해 (%)

명(%)

구 분		매우 높다	비교적 높다	보통이다	비교적 낮다	전혀 관심 없다	전체	χ^2 df p
성 별	남학생	8(4.0)	16(8.0)	63(31.3)	59(29.4)	55(27.4)	201(100.0)	11.898 4 .018 *
	여학생	6(2.8)	35(16.5)	66(31.1)	69(32.5)	36(17.0)	212(100.0)	
	전체	14(3.4)	51(12.3)	129(31.2)	128(31.0)	91(22.0)	413(100.0)	

* $p < .05$

나. 입시교육과 관련한 미술교육

1) 미술 과제 수행 시의 학부모 반응

미술 과제를 수행할 때 부모님의 반응은 어떠하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9>와 같다.

전체적으로 ‘열심히 하라’, ‘관심 없다’, ‘다른 공부하라’, ‘싫은 내색하심’ 순으로 응답 하였다. 성별로 보면, 여학생의 경우 ‘열심히 하라’ 는 부모님이 56.6%인데 비해 남학생은 45.0%가 부모님이 격려하신다고 응답해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술과제 수행 시 싫어하는 내색을 하거나 다른 공부를 하라고 종용하는 경우도 남학생의 응답 비율(21.3%)이 여학생(11.4%)에 비해 높다.

아예 싫은 내색을 하시는 부모님의 경우 여학생(2.4%)에 비해 남학생(9.9%)이 훨씬 높아, 남학생 부모님은 미술교과에 대해 주지교과 학습을 방해하는 교과 정도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다고 판단된다.

인문계고등학생의 학부모 의식을 엿볼 수 있는 부분으로, 아직도 남학생에게는 예능교육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직업적인 부분과 연결하기를 꺼려하는 기미를 엿볼 수가 있다.

<표 9> 미술 과제 수행 시 학부모 반응

명(%)

구 분		관심 없다	싫은 내색	열심히 하라심	다른 공부 하라 하심	기타	전체	χ^2 df p
성 별	남학생	61(30.2)	20(9.9)	91(45.0)	23(11.4)	7(3.5)	202(100.0)	14.158 4 .007 **
	여학생	57(26.9)	5(2.4)	120(56.6)	19(9.0)	11(5.2)	212(100.0)	
	전체	118(28.5)	25(6.0)	211(51.0)	42(10.1)	18(4.3)	414(100.0)	

** $p < .0$

2) 미술 이론 수업과 입시교육의 연관성

미술 이론 수업이 입시 교육과 어떠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한 결과는 표<10>과 같다.

전체적으로 낮다, 보통, 높다 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성별로는 남학생의 63.3%가 낮다고 응답하였고 여학생은 57.6%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남녀학생이 모두 60% 내외로 미술 이론 수업이 입시교육과 연관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미술교과교육이 학교마다 종래의 실기 위주 수업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실제 수학능력고사 언어영역에는 매년 미술과 관련된 다수의 지문이 등장하고 있고 입시논술의 주제로도 미술비평이나 감상에 대한 것이 바로 제시되는 시점에서 현장교육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시사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표 10> 미술 이론수업과 입시교육의 연관성 인식 정도

명(%)

구 분		매우 높다	높다	보통이다	낮다	매우 낮다	전체	χ^2 df p
성 별	남학생	6(3.0)	10(5.0)	58(28.7)	73(36.1)	55(27.2)	202(100.0)	17.275 4 .002 **
	여학생	3(1.4)	9(4.2)	78(36.8)	96(45.3)	26(12.3)	212(100.0)	
	전체	9(2.2)	19(4.6)	136(32.9)	169(40.8)	81(19.6)	414(100.0)	

** $p < .01$

3) 내신 성적과 관련한 미술 평가 점수

내신 성적과 관련하여 학생의 미술 평가 점수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 인지에 대한 결과는 <표11>과 같다.

전체적으로 보통, 높다, 낮다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성별로 비교해 본 결과로는 높다(남학생 - 25.8%, 여학생 - 35.8%), 낮다(남학생 - 34.8%, 여학생 - 24.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p < .05$) 응답 결과로 볼 때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내신 성적에 더 관심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6>의 결과 분석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실기 평가에 대한 부담을 훨씬 많이 가지고 수행 평가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볼 때 남녀공학고등학교의 경우, 실기 수행평가가 있는 과목에서 남학생의 석차가 낮게 몰려있는 사례는 빈번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남녀고등학생 모두 미술 교과 내신 성적에 대한 관심이 ‘보통’인 응답 비율이 제일 높아, 주지교과에 비해 내신 성적에 대한 관심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표 11> 내신 성적과 관련한 학생의 미술 점수에 대한 관심

명(%)

구 분		매우 높다	높다	보통이다	낮다	매우 낮다	전체	χ^2 df p
성 별	남학생	21(10.4)	31(15.4)	79(39.3)	42(20.9)	28(13.9)	201(100.0)	12.194 4 .016 *
	여학생	27(12.7)	49(23.1)	85(40.1)	40(18.9)	11(5.2)	212(100.0)	
	전체	48(11.6)	80(19.4)	164(39.7)	82(19.9)	39(9.4)	413(100.0)	

* $p < .05$

4) 특별활동(미술동아리)참여 의지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미술동아리에 참여할 생각이 있는 지에 대한 결과

는 <표12>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참여하고 싶지 않다, 보통, 참여하고 싶다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남학생의 응답 중 ‘참여하고 싶지 않다’가 62.3%로 여학생의 응답(50%)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미술동아리 참여의지가 약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정서 함양과 창의력 배양이라는 미술 교과 교육의 목표에 입각해 생각한다면 많은 학생이 참여함직하고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야 할 활동이지만, 실제 결과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전혀 참여하고 싶지 않거나 보통의 참여의지를 가지고 있고, 소수의 학생들만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입시 교육에 주력하다보면 정서는 더욱 메마르기가 쉽고 주지교과에 치중하다보면 창의력 배양의 기회는 점점 줄어든다.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편으로 인문계고등학교에서는 적극적인 예능 분야의 동아리 활동이 필수적이다.

<표 12> 미술동아리 특별활동 참여 여부

명(%)

구 분		매우 참여	약간 참여	보통	거의 참여하고 싶지 않다	전혀 참여하고 싶지 않다	전체	χ^2 df p
성 별	남학생	8(4.0)	16(7.9)	52(25.7)	51(25.2)	75(37.1)	202(100.0)	19.262 4 .001 **
	여학생	11(5.2)	48(22.6)	47(22.2)	50(23.6)	56(26.4)	212(100.0)	
	전체	19(4.6)	64(15.5)	99(23.9)	101(24.4)	131(31.6)	414(100.0)	

** p<.01

5) 미술동아리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이유

미술동아리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주된 이유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13>과 같다.

전체적으로 ‘소질과 적성이 맞지 않아서’ (43.5%), ‘시간을 많이 빼앗길 것 같아서’ (31.0%), ‘대학입시와 관련이 적은 분야라서’ (14.9%),

‘기타’ (8.2%), ‘부모님이 반대하실 것 같아서’ (2.4%)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성별간의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소질과 적성이 맞지 않아서’ 라는 응답이 43.5%인 반면, 시간을 많이 빼앗길 것 같거나 대학 입시와 관련이 적어서라고 하는 답이 합해서 44.9%이다.

이러한 결과로 인문계고등학교 학생들이기 때문에 대학 입시와 관련이 적은 분야의 동아리 활동에 시간을 빼앗기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가진 경우가 많다는 것이 확인된다.

<표 13> 미술동아리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이유

		명(%)					
구 분		소질,적성 안 맞음	부모님 반대	시간 소모	대학입시와 관련 적음	기타	전체
성 별	남학생	65(45.8)	3(2.1)	38(26.8)	23(16.2)	19(9.2)	142(100.0)
	여학생	46(40.7)	3(2.7)	41(36.3)	15(13.3)	8(7.1)	113(100.0)
	전체	111(43.5)	6(2.4)	79(31.0)	38(14.9)	21(8.2)	255(100.0)
		$\chi^2_{df p}$					
		2.981 4 .561					

6) 미술실기 작업에 대해 제재당한 경험

교내에서 담임이나 다른 과목 선생님에 의해서 미술 실기작업을 제재나 방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지에 대한 결과는 <표14>와 같다.

남여학생 간에 응답 격차가 매우 큰 것을 볼 수 있는데, 여학생의 경우, ‘있다’ 고 응답한 비율이 48.1%로 남학생(27.7%)에 비해 훨씬 높았다. 반면에 남학생은 57.9%가 ‘없다’ 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들 가운데 <표7>의 통계 결과처럼 실기 작업을 할 때 즐거운 기분이 되면서 안정된 정서를 느끼는 응답자가 많고, <표11>의 결과에서와 같이 남학생에 비해 내신 성적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인 것과 연관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여학생의 경우, 내신 성적에 대한 관심과 교과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이어서 미술 시간 외에도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심지어 다른 교과 시

간에 까지 욕심내어 실기작업을 하는 경우가 꽤 있다.

그럴 때 학급 담임이나 다른 교과 교사로 부터 심하게 제재를 당하고 심지어 작품을 빼앗겨 제출을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러한 일은 대부분의 교사들이 미술교과는 중요과목이 아니라는 편견을 갖고 있으며, 주지교과와의 균형적 학습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에피소드라 할 수 있다.

특히 인문계고등학교의 경우, 대학입시를 지상과제로 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균형적 수행이라는 본래 지표를 상실하고 파행과 불균형을 자행해 본말이 전도된 양상을 띠고 있다.

<표 14> 타 교과 교사에게 미술 실기작업을 제재당한 경험

명(%)

구 분		매우 많다	조금 있다	보통이다	거의 없다	전혀 없다	전체	χ^2 df p
성 별	남학생	14(6.9)	42(20.8)	29(14.4)	46(22.8)	71(35.1)	202(100.0)	36.284 4 .000 ***
	여학생	22(10.4)	80(37.7)	36(17.0)	49(23.1)	25(11.8)	212(100.0)	
	전체	36(8.7)	122(29.5)	65(15.7)	95(22.9)	96(23.2)	414(100.0)	

*** $p < .001$

7) 정기고사 직전에 미술수행평가를 할 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앞두고 미술 실기 수행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면, 어떠한 느낌이 드는 지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15>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부담된다, 보통, 부담되지 않는다 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성별로 보면, 여학생의 90.5%가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남학생은 19.7%가 떨어지는 70.8%만이 부담을 느끼는 걸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내신 성적에 대한 경쟁심이 덜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14.8%)이 여학생(2.3%)에 비해 훨씬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남녀학생 모두가 매우 크게 부담을 느끼는 것은 미술수행평가에 대해 다른 교과와 차별적 느낌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미술수행평가도 다른 교과와 시험과 같은 차원의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정기고사 기간 얼마 전에 실시하게 되면 타교과 시험공부에 방해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수가 많고, 심지어 항의하는 경우까지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창의력이 중요한 경쟁력이 되는 현대사회의 교육, 문화적 코드에 대한 인식이 인문계고등학교에서는 입시교육에 막혀서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표 15> 정기고사 직전에 미술 수행평가를 할 때 드는 느낌

명(%)

구 분		매우 부담 된다	조금 부담 된다	보통이다	거의 부담되지 않는다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전체	χ^2 df p
성 별	남학생	78(38.6)	65(32.2)	29(14.4)	18(8.9)	12(5.9)	202(100.0)	35.505 4 .000 ***
	여학생	130(61.3)	62(29.2)	15(7.1)	2(0.9)	3(1.4)	212(100.0)	
	전체	208(50.2)	127(30.7)	44(10.6)	20(4.8)	15(3.6)	414(100.0)	

*** $p < .001$

다. 미술교과의 물리적 여건

1) 미술실 사용 정도

미술실을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 지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16>에서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거의 또는 전혀사용 않음, 매시간 또는 자주 사용, 가끔 사용 순으로 응답하였다.

성별로 보았을 때 남학생의 60.9%가 거의 또는 전혀 사용 않는다는 응답을 하였고 여학생은 27.9%로 비율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며,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실제로 2개 학년 15학급 이상의 수업을 미술실 1실에서 할 경우, 미술실 규모가 작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작품 보관 공간의 문제나 비품관리, 교사의 수업준비 공간 부족 등으로 인해 상징적인 공간으로만 존재하고 유명무실해져서 학생들이 작업할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분석 결과로 간과할 수 없는 점은 남학생이 특히 미술실을 많이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앞의 여러 문항 결과와 유관하다는 것이다.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미술교과에 대한 선호도, 실기 수업이나 내신 성적에 대한 관심 등이 현저히 낮았다는 결과로 보아 지도교사가 적극적으로 미술실을 활용하여 수업할 수 있는 동기가 낮게 부여되었을 것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표 16> 미술실 사용 정도

								명(%)
구 분		매시간 사용	자주 사용	가끔 사용	거의 사용하지 않음	전혀 사용하지 않음	전체	χ^2 df p
성 별	남학생	53(26.2)	10(5.0)	16(7.9)	20(9.9)	103(51.0)	202(100.0)	148.303 4 .000 ***
	여학생	50(23.6)	11(5.2)	92(43.4)	51(24.1)	8(3.8)	212(100.0)	
	전체	103(24.9)	21(5.1)	108(26.1)	71(17.1)	111(26.8)	414(100.0)	

므로 그 경우는 작품 보관과 급배수시설 불편에 우선적으로 응답한 결과를 볼 수 있다

성별로 두 번째로 불편함을 지적한 응답자가 많은 경우는 기타 사항이었는데, 기타 이유로는 일반적으로 실기 작업대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던가, 재료 및 용구 보관이 안된다는지 일반교실보다 비교적 넓은 공간이라 교사의 지시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경우 등을 경험을 통해 제시할 수 있다.

<표 17> 미술실 사용 시 불편한 점

명(%)

구 분		작품 보관 공간 부족	냉난방 시설의 부족함	이동 불편한 위치	급배수 시설의 불편함	기타	전체	χ^2 df p
성 별	남학생	4(4.2)	9(9.4)	46(47.9)	9(9.4)	28(29.2)	96(100.0)	20.628 4 .000 ***
	여학생	36(22.9)	10(6.4)	55(35.0)	25(15.9)	31(19.7)	157(100.0)	
	전체	40(15.8)	19(7.5)	101(39.9)	34(13.4)	59(23.3)	253(100.0)	

*** p<.001

3) 미술실 공간의 실기 수업 적합성

미술실 공간은 실기수업을 하기에 적합한 크기인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한 결과는 <표18>과 같다.

전체적으로 좁다, 보통, 넓다 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성별로 보았을 때 남학생은 44.8%가 좁다고 응답했고 여학생은 47.2%였다. 남학생의 22.9%는 넓다고 응답했고 여학생은 12.7%만이 넓다고 응답해 통계상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다.

남학생 77.1%, 여학생 87.3%가 보통 이하라고 답한 것은 인문계 고등학교 예능 교육 현장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대부분의 인문계고등학교는 학생들의 입시 준비를 돕기 위한 자율학습실이나 넓은 독서실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국민공통기본교과를 학습하는 10학년과 선택과정의 11학년 학생이 모두 사용하고 각종 교구와 설비가 차지할 공간이 필요한 미술실은 교

실 한 칸 또는 1,5칸 정도인 경우가 많아, 실기 수업에 턱없이 부족한 모 양을 하고 있다.

<표 18> 미술실 공간의 실기수업 적합성

명(%)

구 분		매우 넓다	넓다	보통이다	좁다	매우 좁다	전체	χ^2 df p
성 별	남학생	13(6.8)	31(16.1)	62(32.3)	34(17.7)	52(27.1)	192(100.0)	38.100 4 .000 ***
	여학생	4(1.9)	23(10.8)	85(40.1)	78(36.8)	22(10.4)	212(100.0)	
	전체	17(4.2)	54(13.4)	147(36.4)	112(27.7)	74(18.3)	404(100.0)	

*** $p < .001$

4) 미술 실기 작품 보관 장소

학생의 미술 실기 작품을 보관하는 장소는 어디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결과는 <표19>와 같다.

전체적으로 미술실 보관대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고 집, 교실, 사물함에 순으로 응답하였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38.0%가 미술실 보관대라고 응답하였고 여학생은 31.8%였다. 다음으로 남학생은 교실사물함에 둔다고 하였지만 여학생은 교실 아무데나 두거나 집으로 가져간다는 응답이 많아서 성별을 변인으로 하여 유의한 차이를 얻고 있다.

결과적으로 남녀 인문계고등학교 대부분의 학생들이 미술실에 제대로 작품을 보관할 수 있는 설비가 부족해서 집에 가지고 가거나 좁은 사물함에 보관하는 등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표 18>의 결과와 관련해서 분석해보면, 실기실 규모가 작아 작품을 보관할 장소 역시 마땅치 않다고 보여진다.

대부분의 인문계고등학교가 교실 이외에 입시 준비를 위한 자율학습실을 넉넉한 공간으로 준비해 두는 것과 비교해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표 19> 미술 실기 작품을 보관하는 장소

명(%)

구 분		교실 사물함	미술실 보관대	교실 아무데나	집으로 가져감	기타	전체	χ^2 df p
성 별	남학생	53(26.5)	76(38.0)	24(12.0)	26(13.0)	21(10.5)	200(100.0)	60.026 4 .000 ***
	여학생	19(9.0)	67(31.8)	60(28.4)	62(29.4)	3(1.4)	211(100.0)	
	전체	72(17.5)	143(34.8)	84(20.4)	88(21.4)	24(5.8)	411(100.0)	

*** $p < .001$

5) 미술실 설비에 대한 만족도

학생들을 위한 미술실 설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에 대한 질문의 결과는 <표20>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불만족스럽다, 보통, 만족스럽다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의 50.7%가 불만족스러워 하고 여학생은 37.8%가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하였다.

여학생은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불만족스러운 경우보다 훨씬 높아서 통계상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술실 설비를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응답자는 남학생 14.2%, 여학생 18.8%로 여학생이 조금 더 만족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전체적으로 소수에 불과해 인문계 고등학교 미술실 설비는 학생들의 불만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교육의 현장이 수업에 필요한 설비나 기자재 면에서 사설 학원에 비해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표 20> 미술실 설비에 대한 만족도

명(%)

구 분		매우 만족스 럽다	만족 스럽다	보통이다	불만족 스럽다	매우 불만족 스럽다	전체	χ^2 df p
성 별	남학생	10(5.1)	18(9.1)	69(35.0)	45(22.8)	55(27.9)	197(100.0)	24.475 4 .000 ***
	여학생	6(2.8)	34(16.0)	92(43.4)	58(27.4)	22(10.4)	212(100.0)	
	전체	16(3.9)	52(12.7)	161(39.4)	103(25.2)	77(18.8)	409(100.0)	

*** p<.001

6) 학교에서 제공하는 실기재료에 대한 만족도

학교에서 준비해 주는 실기 재료로 미술 실기를 하기에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의 결과는 <표21>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만족, 보통, 불만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의 22.75가 만족한 반면 여학생은 52.85가 만족한다고 응답해 남, 여간 현격한 차이를 보이면서 통계상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

불만족한 경우는 반대로 남학생은 42.6% 여학생은 10.5%로 여학생은 대부분이 보통이거나 만족하였고 남학생은 보통이거나 불만족하였다는 결과를 볼 수 있다. 실기에 필요한 재료, 용구가 불편 없이 제공되는 경우는 드물다. 기본 실습품도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라 응답 결과는 의외가 아닌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각 학교 예산 운영 형태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겠지만, 학생의 교과 선호도나 교과 필요성 인식 여부와도 연관 지어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당국의 교육 시책과도 무관하지 않아서, 과학 교구나 실험 재료 등이 기준에 접근해 있는 것과 비교해 볼 수 있다.

<표 21> 학교에서 준비하는 실기 재료에 대한 만족도

명(%)

구 분		매우 만족스럽 다	만족 스럽다	보통이다	불만족 스럽다	매우 불만족 스럽다	전체	χ^2 df p
성 별	남학생	13(6.4)	33(16.3)	70(34.7)	39(19.3)	47(23.3)	202(100.0)	71.112 4 .000 ***
	여학생	32(15.2)	79(37.6)	77(36.7)	18(8.6)	4(1.9)	210(100.0)	
	전체	45(10.9)	112(27.2)	147(35.7)	57(13.8)	21(12.4)	412(100.0)	

***p<.001

라. 미술교육 개선 방안

1) 미술교육의 목표를 이루는데 우선되어야 할 부분

정서 함양과 창의성 계발’이라는 미술 교육의 두 가지 목표를 이루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지에 대한 질문의 결과는 <표 22>와 같다.

전체적으로 ‘충분한 수업시수 확보’, ‘교구의 확충’, ‘교과의 중요도 인식’, ‘교사의 재교육’, 기타 순으로 응답하였다. 모든 항목이 미술교육의 내실화에 필요한 내용이지만 미술교육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여건은 부족한 시수를 보충하는 것임이 응답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성별로는 남학생은 ‘충분한 수업시수 확보’에 대해 26.0% 응답하였고 여학생은 28.9%로 응답하였다.

실제로 주당 1시간(50분)수업으로 수업 준비와 실기에 대한 안내, 표현 활동, 정리, 감상, 평가까지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다음으로 여학생은 교구 확충이 시급하다는 응답을 하였고 남학생은 교과의 중요도 인식과 함께 교구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22> 미술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최우선 개선점

명(%)

구 분		교구의 확충	교사의 재교육	충분한 수업시수 확보	교과의 중요도 인식	기타	전체	χ^2 df p
성 별	남학생	46(23.0)	25(12.5)	52(26.0)	47(23.5)	30(15.0)	200(100.0)	6.413 4 .170
	여학생	61(28.8)	31(14.6)	62(29.2)	32(15.1)	26(12.3)	212(100.0)	
	전체	107(26.0)	56(13.6)	114(27.7)	79(19.2)	56(13.6)	412(100.0)	

* $p < .05$

2) 10학년 미술교과 시수

제7차 교육과정 10학년(고 1) 미술교과에 배당되어 있는 주당 1시간(50분)으로 미술실기와 이론 수업을 하기에 어떠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의 결과는 <표 23>과 같다.

전체적으로 부족하다, 적당하다, 충분하다는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성별로 보았을 때 남학생은 42.6%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고 여학생은 53.3%가 부족하다고 응답 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제7차 교육과정 10학년 학생들의 수업 시수에 대한 생각은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부족함을 훨씬 많이 느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학생들의 미술교과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게 나타난 <표4>의 결과와 유관하게 볼 수가 있다.

충분하다고 느끼는 응답자는 남학생 26.7%, 여학생 16.5%에 불과하다.

학습자가 수업시간이 태부족하다고 느끼는 만큼 교사-학생 간의 상호소통이 가능한 교수-학습 시간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다.

<표 23> 국민공통기본교과 미술 시수에 대한 생각

명(%)

구 분		매우 충분하다	충분 하다	적당 하다	부족 하다	매우 부족하다	전체	χ^2 df p
성 별	남학생	34(16.8)	20(9.9)	62(30.7)	63(31.2)	23(11.4)	202(100.0)	12.624 4 .013 *
	여학생	14(6.6)	21(9.9)	64(30.2)	89(42.0)	24(11.3)	212(100.0)	
	전체	48(11.6)	41(9.9)	129(30.4)	152(36.7)	47(11.4)	414(100.0)	

* $p < .05$

3) 10학년 미술교과에 필요한 주당 수업 시수

주당 1시간의 수업이 모자란다는 응답자 가운데 7차 교육과정 10학년 미술교과에 필요한 주당수업시수로 몇 시간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24>와 같다.

전체적으로 두 시간에 대한 응답자가 79.2%, 3시간 이상에 대한 응답자는 20.8%로 성별별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미술과 실기학습과제에 관한 본 수업은, 준비-발상-구상-표현-감상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여러 단계가 50분 안에 일단락되기는 어려운 만큼, <표 23> 의 결과처럼 많은 학습자가 시수 부족을 느끼고 또 필요시수를 대부분 2시간 이상으로 답하고 있다.

미술교과의 학습 내용이 표현학습, 이해학습, 감상학습으로 이루어져 있다보니, 짧은 시간에 단락을 끊어서 수업할 수 없는 것이 한계이자 최소한 주당 두 시간 이상의 연속된 수업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표 24> 10학년 미술교과에 필요한 수업 시수 명(%)

구 분		2시간	3시간 이상	전체	χ^2 df p
성 별	남학생	73(76.8)	22(23.2)	95(100.0)	.604 1 .437
	여학생	95(81.2)	22(18.8)	117(100.0)	
	전체	168(79.2)	44(20.8)	212(100.0)	

4) 미술 수업을 통해 얻고 싶은 정보

개인적으로 미술 수업에서 가장 얻고 싶은 정보의 분야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의 결과는 <표25>에서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가장 비율이 높은 응답은 디자인실기 및 이론(43.7%)이고 다음으로 동서양 작품의 감상, 기타, 회화, 조소실기 및 이론, 현대 미술 순으로 응답하였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디자인 실기 및 이론에 35.6% 응답했고, 여학생은 51.4%로 남학생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미술이 생활 속에서 문화의 한 축으로 공고히 자리잡은 만큼 순수미술에 비해 디자인에 대한 남녀학생의 관심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디지털시대라 일컬어지는 21세기 미술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한가지 더 제시해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표 25> 미술수업을 통해 가장 얻고 싶은 정보

명(%)

구 분		회화 조소실기 이론	디자인 실기 이론	동서양 작품의 감상	현대 미술	기타	전체	χ^2 df p
성 별	남학생	19(9.4)	72(35.6)	48(23.8)	21(10.4)	42(20.8)	202(100.0)	24.047 4 .000 ***
	여학생	30(14.3)	108(51.4)	33(15.7)	23(11.0)	16(7.6)	210(100.0)	
	전체	49(11.9)	180(43.7)	81(19.7)	44(10.7)	58(14.1)	412(100.0)	

*** $p<.001$

5) 미술교과 보충수업의 필요성

미술교과도 통합교과 학습차원에서 보충수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결과는 <표26>과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미술교과 보충수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으로는 필요없음, 보통이다, 필요함 순으로 응답하였다.

성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인문계고등학교에서 도구교과나 수학능력고사와 직접 관련된 과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겨지는 예능교과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수학능력고사 언어 영역에 미술사조나 작가에 대한 지문이 자주 나오지만 보충수업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고등학교 입학 연합고사를 치르던 당시의 중학교에서 미술교과보충수업을 하던 것과 대비해 보면 보충수업은 입시교과와 직결됨을 알 수 있다.

인문계고등학교 학생들이 보충수업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대학수학능력고사와 관련이 적다고 인식하는 것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표 26> 미술교과 보충수업의 필요성

명(%)

구 분		매우 필요하 다	필요하다	보통이다	거의 필요 없다	전혀 필요 없다	전체	χ^2 df p
성 별	남학생	14(6.9)	16(7.9)	54(26.7)	48(23.8)	70(34.7)	202(100.0)	6.712 4 .152
	여학생	5(2.4)	24(11.3)	65(30.7)	50(23.6)	68(32.1)	212(100.0)	
	전체	19(4.6)	40(9.7)	119(28.7)	98(23.7)	138(33.3)	414(100.0)	

6) 첨단교구 확충의 필요성

그래픽 전용 컴퓨터와 같은 첨단 교구 확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27>과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필요함, 보통, 필요없음 순으로 응답하였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필요하다’에 60.7%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여학생은 68.4%로 훨씬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이러한 결과는 <표25>의 결과로 여학생과 여자고등학교에서 디자인 수업에 훨씬 관심이 높은 점과 연결하여 생각할 수 있겠다.

21세기는 디지털시대, 학습자의 학습자는 디지털 세대로 불리고 있다.

공교육의 장애 구비된 설비, 교구와 학습지도 방법은 디지털시대에 발

을 맞추고 있는 것인 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소위 디지털 세대는 요람에서부터 각종 영상물을 접해 왔고, 인터넷은 삶의 필수 요건이 되어 있다.

이러한 시대에 최소한 미술교과에서는 컴퓨터 그래픽과 영상미술은 교육과정에 도입해야 형식적이고 구태의연한 학습과정을 면할 수 있다.

실제로 대다수의 남녀학생이 첨단 교구 확충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는 것이 결과로 나타나 있다.

<표 27> 첨단 교구 확충의 필요성

명(%)

구 분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보통이다	별로 필요 없다	전혀 필요 없다	전체	χ^2 df p
성 별	남학생	72(35.8)	50(24.9)	44(21.9)	11(5.5)	24(11.9)	201(100.0)	21.834 4 .000 ***
	여학생	57(26.9)	88(41.5)	53(25.0)	5(2.4)	9(4.2)	212(100.0)	
	전체	129(31.2)	138(33.4)	97(23.5)	16(3.9)	33(8.0)	413(100.0)	

*** p<.001

3. 종합적 논의

인간은 저마다 타고난 유전적 조건과 자신에게 주어지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성장하고 발달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인간형성 과정에 환경이 차지하는 비중의 크기는 새삼스럽게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정원식이 교육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환경의 구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 바와 같이³²⁾, 그것은 교육과정에서 작용하는 모든 힘이 결국 환경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술교육을 통하여 전인적 인격을 형성하고자하는 궁극적인 교육의 성과를 위해 최선의 교육 환경을 보장받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작금의 우리

32) 정원식의 2인 공저. 「교육 심리학」. 서울: 교육출판사. 1994. p.125.

교육 현실은 반대 현상에 가깝다 하겠다. 미술 교육 효과를 거스르는 현재의 미술 수업 환경을 몇 가지 언급해 보기로 한다.

제7차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예체능과목이 선택과목으로 바뀌면서 필수 수업시수가 크게 줄었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음악, 미술 총 8단위에서 1단위, 체육 14단위에서 2단위로 무려 7~12단위가 줄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목표로 내건 창의성교육, 전인교육의 슬로건이 무색한 일이다. 고교 2학년부터 선택과목의 폭을 넓힌 것일 뿐 시수가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입시에 바쁜 일선 학교에서 2학년부터 예체능과목을 선택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시설기준에서도, 미술실 부족한 교사들의 오래된 민원사항이고 학생들의 불편사항이다.

그러나 당국의 정책은 문제해결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6차 교육과정에 적용된 학교시설 설비기준령에는 미술실을 30학급마다 1실씩 설치하도록 돼 있었으나, 제7차 교육과정 들어 뚜렷한 이유 없이 그 최소기준마저 없어진 것이다.

시설, 설비 면에서도 암막이나 배수시설, 환풍 시설은 고사하고 가장 필요한 수도 시설마저 없는 미술실이 대부분이다.

미술 수업에 필요한 교구 역시 마찬가지다. 인문계 고등학교의 대부분이 교육청에서 정한 교구 기준 상황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교구가 필요한 회화, 조소, 디자인, 서예의 네 영역 가운데 조소나 디자인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소요 기준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미술교사가 절감하는 고충은 시수 부족으로 인한 수업의 질 저하이다. 10학년의 경우, 주당 1시간(50분)수업으로 실기수업과 함께 이론수업을 하고 지필고사까지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교사들은 1학기 최소 2차례 이상 실기수행평가를 해야 하는 부담도 떠안고 있다. 때문에 창의적 예능수업은 역부족인 셈이다.

학생, 학부모, 학교 등 교육주체들의 인식부족도 큰 장애요인이다. 입시 준비에 밤늦게까지 자율학습으로 몸 뻘 새 없고, 휴일엔 학원가기 바쁜 학생들에게 미술 실기 수행평가까지 하냐는 학부모의 항의도 인문계고등학교에서는 드물지 않다.

또한 미술교사들이 과제를 낼 때 인문계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성적에 들어가느냐 라는 것이다. 그 말에는 성적에 반영되지 않으면, 적당히 하겠다는 뜻이 들어있다. 이러다 보니 상당수 교사들은

말썽없이 조용히 수업을 이끌어 가는 데 우선순위를 둔다. 학생들도 이런 예능교육이 흡족할 리가 없고 입시에 방해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기까지 하는 것이다. 덩달아 타 교과 교사들까지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를 간과하고 입시준비에 방해되는 교과 정도로 생각해 학생들의 표현활동에 제재를 가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리고 세계화, 정보화, 다원화, 네트워크화로 표현되는 이 시대에 디지털 세대의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구태의연한 교육 방식과 제반 환경은 갈수록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미술교과교육의 여러 가지 인식과 환경적인 문제점은 대학입시가 지상과제인 인문계고등학교에서 가장 심각하다.

현재의 우리 미술교과교육이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 지에 대한 고찰은 미래의 지평을 여는 바람직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현장의 인문계고등학생들을 통해 설문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 결과는 바로 미술교과교육의 과제이자 내실화 방안으로 정리될 수 있다.

먼저 주지교과 위주의 교육 풍토에서 미술교과교육이 담당할 수 있는 정서 관련인 균형적 뒷받침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좌뇌 중심의 주지교과에서는 자칫 인간이 본질적으로 가지는 감각이나 감수성을 축소시킬 수 있으므로 현대의 교육심리학자들은 바람직한 교육 방편으로 활발한 우뇌 활동과 관련있는 미술교육을 통한 좌, 우뇌의 균형 있는 발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스라엘 국립과학고등학교의 커리큘럼 중에 예능교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이라는 사실을 예를 들지 않더라도, 더 이상 교육현장에서 소외되어서는 안되는 이유와 당위성을 교육과 관련된 모든 계층이 인지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교수-학습을 정상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의 확보가 중요하다.

미술교육의 물리적 여건도 개선되어야 한다. 미술교육은 물질을 통한 정신교육이니만큼 물성을 조작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과 도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공간과 시설, 기자재의 개선과 확충이 시급하다.

영상정보가 강조되는 현대 사회에 부응할 수 있는 소양교육과정의 새로운 구성도 필요하다. 학교미술교육이 미래를 대비하고 오늘의 시각 문화를 능동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소양 교육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첨단 매체가 주도하는 교육이 되어서는 안되고, 교수-학습의 실
제를 보완하는 활동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모든 정보가 디지털화할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것은 인성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 ‘참된 인성교육’을 위해 미술교과교육이 더욱 필요한 것이다.

V. 요약 및 결론

1. 요약

지식정보사회는 창의적이고 정서적인 인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인간의 정서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교과 중의 하나는 미술교육이다. 제7차 교육과정 도입과 더불어 인간정서교육의 효용성이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미술교과교육은 소홀히 취급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인문계 고등학교 미술교과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을 진단, 분석하여 미술교과교육의 내실화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미술교과교육과 관련된 문헌들을 고찰하였으며,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론적 배경으로는 미술교육의 의의와 성격, 교과교육으로서의 미술교육, 미술교육과정의 변천과정, 현대미술교육의 동향 등을 살펴보았다.

미술교육의 의의는 첫째, 눈을 통해 지식이나 정보의 대부분을 얻어 온 인간의 시각적 사고를 확장시킨다. 둘째, 활발한 우뇌활동과 관계가 있는 미술교육을 통해 주지교과 위주의 교육을 통해 침체되기 쉬운 감각과 감수성을 일깨워 좌·우뇌의 균형 있는 발달을 꾀한다. 셋째, 시각과 공간의 언어로 질적 사고를 통한 세계나 사물을 인지하고 자신의 사고를 형상화함으로써 생동감 있는 미적 체험을 심화시킨다. 넷째, 미적 체험을 통해 올바른 삶과 삶을 일깨우면서 생활을 생동감 있고 아름답게 만든다. 다섯째, 자유로움 속에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다양한 물질과 방법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일깨워 개성 있는 자아표현의 방법을 제시한다. 여섯째, 자국의 민족문화를 시각적 교육을 통해 이해하고 새롭게 자신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게 하여 민족문화의 창조적 계승과 세계화, 국제화에 이바지한다. 일곱째, 감성과 창조성이 중요시되는 문화의 시대에 감정의 올바른 조절과 감동을 회복시켜준다.

미술교육의 특성은 세 가지 관점에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정서교육으로서의 미술교육이다. 둘째는 창조성의 육성을 위한 미술교육이다. 셋째는 여러 형태의 미술 활동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만들고 그리는 등의 이른바 표현 능력을 기른다는 관점이다. 따라서 미술교육은 미술의 형식

면에서는 조형성을, 그 형식이 담겨지는 내용면에서는 창의성을, 내용과 형식면이 감상된다는 점에서 정서성을 지닌다.

교과교육으로서의 미술교육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는 교과교육으로서 학교 교육과정 상에서의 미술교육의 목적은 지적, 정의적, 심동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전인적 인간을 형성하는데 있다. 둘째는 미적 인간 육성을 위해 조형능력 신장을 통한 사고력 육성, 정서와 인성의 함양, 창의력 발달 측면에서 미술 교과 교육의 특성을 지닌다. 셋째는 미술교과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시간적, 공간적, 물질적인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효과적이다. 넷째, 미술교육과정은 교육의 일반 목표와 미술교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미술교과의 내용을 조직화하고 체계화한 계획된 일련의 학습과업의 체계이다.

이러한 미술교과 교육과정의 변천과정은 기능 습득이 위주였던 교육과정 이전의 미술교육, 생활, 경험 중심의 교육 이념에 기초한 제1차 교육과정,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었던 제2차 교육과정, 학문 중심 이론에 바탕을 둔 제3차 교육과정, 미래 지향적 교육과정 정신이 반영된 제4차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적정화, 내실화, 지역화를 개정 방침으로 한 제5차 교육과정, 20세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개정된 제6차 교육과정, 그리고 현재의 표현 및 감상 능력을 기르고 창의력을 계발하며 심미적인 태도를 함양하는 데 총괄 목표를 둔 제7차 교육과정으로 구분된다.

또한 현재 미술교과교육의 연구동향은 창의성 중심연구, 미술이해중심연구, 다문화 중심연구가 절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 미술계의 노력으로 한국적인 미술교육을 정립하는 것을 과제로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입시교육에 떠밀려 본 모습을 잃은 미술교육의 수업환경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찾고자, 울산 시내 10개 학급 이상으로 구성된 인문계 남자고등학교, 인문계 여자고등학교, 인문계 남녀공학고등학교 각 1개 학교의 10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3개 학급씩을 표본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 기간은 2006년 9월 4일부터 9월 18일까지였으며 조사 방법은 설문대상 인문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직접 설문지를 배부하고 직접 받는 형식으로 추진되었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미술교과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입시교육과 관련된 미술교과 교육과정 내용, 미술교과의 물리적 여건에 대한 만족도, 미술교육

개선방안에 대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분석과 교차 분석을 하였다.

이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 교과에 대한 인식에 대한 결과들이다. 미술교과수업에 대한 인식으로는 미술교과수업의 필요성(37.7%), 보통(34.5%), 불필요(27.8%) 순으로 응답하였다. 미술교과 수업의 필요성을 느끼는 응답자에 한해 미술교과 수업이 필요한 이유를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창의력 배양에 필요하므로(42.6%), 정서 함양에 도움을 주므로 (28.2%), 생활에 도움을 주므로(14.4%), 수능 시험에 출제되므로(5.1%)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술 교과 수업이 일상생활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해서는 미술교과 수업과 일상생활의 관련정도에 대한 응답은 보통(45.3%), 적다(27.8%), 많다(26.9%)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술교과에 대한 학생 자신의 선호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보통 (40.1%), 높다(30.0%), 낮다(29.9%) 순으로 나타났다. 미술교과를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실기 시간이 많아서, 교과 내용이 재미있어서, 학습 내용이 어렵지 않으므로, 평가에 대한 부담이 적은 편이라서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미술 교과를 싫어하는 이유는 실기 평가에 대한 부담에 응답한 비율이 50.6%로 압도적이고 다음으로 대학입시와 관련이 적어서, 실기시간과 준비물 때문에 싫다는 순서로 응답하였다. 미술 실기 수업을 받을 때의 느낌에 대해서는 표현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속이 상한다, 점수 때문에 할 수 없이 한다, 즐거운 기분으로 안정된 정서를 느낀다, 남보다 잘 하고 싶은 경쟁심이 생긴다 순으로 응답하였다. 부모님의 미술 과목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에 대해서는 낮다, 보통, 높다의 순으로 응답했으며 남학생 부모님에 비해서는 여학생 부모님의 관심이 조금 덜 낮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둘째, 입시교육과 관련한 미술교육에 대한 결과들이다. 미술 과제를 수행할 때 부모님의 반응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라, 관심 없다, 다른 공부하라, 싫은 내색하심 순으로 응답하였다. 미술 이론 수업이 입시 교육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낮다, 보통, 높다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성별로는 남학생의 63.3%가 낮다고 응답하였고 여학생은 57.6%로 차이가 있다. 내신 성적과 관련하여 학생의 미술 평가 점수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는 보통, 높다, 낮다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미술동아리 참여

의사에 대해서 참여하고 싶지 않다, 보통, 참여하고 싶다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남학생의 응답 중 ‘참여하고 싶지 않다’가 62.3%로 여학생의 응답(50%)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보였다. 미술동아리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주된 이유에 대해서는 소질과 적성이 맞지 않아서(43.5%), 시간을 많이 빼앗길 것 같아서(31.0%), 대학입시와 관련이 적은 분야라서(14.9%), 기타(8.2%), 부모님이 반대하실 것 같아서(2.4%)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교내에서 담임이나 다른 과목 선생님에 의해서 미술 실기작업을 제재나 방해를 당한 경험에 대해서는 없다, 있다, 보통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앞두고 미술 실기 수행 평가 실시에 대해서는 부담된다, 보통, 부담되지 않는다는 순으로 응답하였다.

셋째, 미술교과의 물리적 여건에 대한 결과들이다. 미술실을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거의 또는 전혀 사용 않음, 매시간 또는 자주 사용, 가끔 사용 순으로 응답하였다. 미술실을 사용하면서 가장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외진 곳에 있어서 이동하기에 힘들다, 기타, 작품을 보관할 공간이 없어서, 급, 배수 시설이 없어서 실기할 때 불편하다, 냉난방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미술실 공간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좁다, 보통, 넓다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생의 미술 실기 작품을 보관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미술실 보관대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고 집, 교실, 사물함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생들을 위한 미술실 설비에 대해서는 불만족, 보통, 만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교에서 준비해 주는 실기 재료에 대해서는 만족, 보통, 불만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넷째, 미술교육의 개선 방안에 대한 설문결과들이다. 미술교육 목표달성을 위한 최우선적 과제로는 충분한 수업시수 확보, 교구의 확충, 교과의 중요도 인식, 교사의 재교육, 기타 순으로 응답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 10학년 미술교과에 배당되어 있는 주당 1시간에 대해서는 부족, 적당, 충분한 순으로 응답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 10학년 미술교과에 필요한 주당수업시수에 대해서는 2시간(79.2%), 3시간 이상(20.8%)로 나타났다. 미술 수업에서 가장 얻고 싶은 정보의 분야는 디자인실기 및 이론(43.7%), 동서양 작품의 감상, 기타, 회화, 조소실기 및 이론, 현대 미술 순으로 응답하였다. 미술교과 보충수업 실시에 대해서는 필요 없음, 보통, 필요 순으로 응답하였다. 첨단 교구 확충에 대해서는 필요, 보통, 불필요 순으로 응답하였다.

2. 결론

인문계 고등학교 미술교과교육은 변화와 개혁 속에서도 입시 위주의 교육 풍토에 밀려 교육 현장에서 항상 왜소한 모습이었다. 설문 결과로 알 수 있었던 인문계 고등학교 수업 환경은 교과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시간적, 공간적, 물리적 결핍의 심각함이었다.

먼저 미술교과에 대한 인식부터 정리해보면, 창의력 배양과 정서 함양을 위해 미술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많다. 그러나 부모님의 이해가 낮고, 학습자도 생활과 관련한 예능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뿐 아니라 실기평가에 대한 부담 등으로 교과선호도 역시 높은 편은 아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적 환경 역시 학부모나 타과목 교사로부터 입시 준비를 방해하는 교과목 정도의 대우를 받으며, 학습자에게도 통합교과적 사고가 아직 확산되지 않은 탓인지 입시와 관련 없는 과목으로 인지되고 있고 내신 점수에 대한 관심도도 그다지 높지 않다.

물리적 여건 또한 열악해 이동하기 힘든 구석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좁고 급, 배수 시설이 없는 미술실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학습자가 많았다. 작품 보관대가 없어서 제작 중인 작품을 교실의 좁은 사물함에 보관하거나 집에 가져가기도 하였으며, 설비나 실기 재료 배급에 불만족하는 경우가 많았다.

미술교과교육의 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수업에 필요한 시수 확보로 보았으며 적정 시수는 주당 2시간으로 분석되었다.

시대적 상황이 반영된 듯 미술교과 수업에서 가장 얻고 싶은 정보의 분야는 디자인 관련이며 영상세대 학습자들이라 첨단교구 확충에 대한 희망이 강한 편이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설문 분석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인문계 고등학교의 미술교과교육 내실화 방안은 다음 몇 가지로 결론 지을 수 있겠다.

첫째, 오늘의 학교 교육은 전인교육을 표방하지만 실제로 주지교과 위주로 흐르고 있는 현재의 모습에서 탈피해야 한다. 정서, 감성교육이 주지교과와 균형을 이루는 조화로운 인간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능교육을 정상화하여 감동의 회복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려면 교육 정책자, 학교 경영자, 교사, 학부모, 학생이 현실을 직시한 인식 변화에 동참해야 한다. 예술이 인간 정서 형성의 기본 도구라는 것을 인정하고 미술교과에 대한 인식을 주변교과목에서 주요교과목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

둘째, 교육과정 상의 환경이 정비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입시교육을 위해 도구과목 위주로 수업이 편중되고 통합교과 의식은 유명무실한 상태가 지속되지 않도록, 연수 등을 통해 7차 교육과정 원래 취지를 회복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물리적인 여건을 최적 상태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적절한 학습 공간과 작업에 맞는 설비, 실기 재료, 용구의 확보를 위해 담당교사의 직접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관리자의 이해와 행, 재정적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

넷째, 미술교과교육에 필요한 시수가 적정하게 확보돼야 한다. 이론, 실기를 병행하고 학기당 2회 이상의 실기수행 평가를 실시하는데다가 교사 1인이 평가하는 대상이 10학급을 기준하면 한 학기에 800명 선인 미술교과교육 현장의 현실에서, 주당 1시간은 턱없이 모자라는 시수이다.

다섯째, 미래 문화의 소비자이며 변화와 개선의 주역인 학습자가 요구하는 ‘생활 속의 미술’에 대한 정보 제공이 시급하다. 순수미술 지향적이었던 학교교육이 발 빠르게 개선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여섯째, 시각 커뮤니케이션의 확대로 도래한 영상정보화 시대에 알맞은 첨단교구의 확충이 필요하다. 그리기, 만들기에만 국한되지 않고 미디어 교육의 일환인 ‘비주얼 리터러시(Visual Literacy)’도 가능할 때, 형식적인 교육에서 탈피할 수 있다.

교육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환경의 구성과 직결된다는 말처럼, 적극적인 환경 개선이 실질적인 교과교육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성원(1995). **학교미술교육의 현황과 그 방향성에 관한 연구-중,고등학교 미술교육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숙자 외(2005). **미술과 교수-학습 방법과 실천**. 서울: 학지사.
- 고숙자 외(2004). **미술교육 이론의 탐색**. 서울: 예경.
- 교육부(1994). **중학교 미술과 교육과정 해설**. 서울: 대한교과서.
- 교육인적자원부(2001).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서울: 대한교과서.
- 김경희(1995). **정서란 무엇인가**. 서울: 민음사.
- 김민선(2000). **중등학교 미술교육의 정체성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숙 외(2003). **미술교육의 동향과 전망**. 서울: 학지사.
- 김숙향(1987). **미술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기초적 연구**. 영남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채(1998). **사고력 이론 개발과 수업**. 서울: 교육과학사.
- 김영철(1999). **설문조사를 통한 청소년 미술교육의 실태와 역할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학(1992). **미술교육**. 서울: 대완도서.
- 김정(1993). **미술교육 총론**. 서울: 학연사.
- 김정(2006). **증보판 미술교육 총론**. 서울: 학연사.
- 김정희(2003). **미술교육과 문화**. 서울: 학지사.
- 김춘일(1984). **미술교육론**. 서울: 홍성사.
- 김춘일(1993). **아동미술교육의 목적과 특성**. 초등교사미술연수자료.
- 나윤희(20002).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저학년 미술교육의 연계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로웬펠트, 브리테인 공저(1993). **서울교육대학교 미술교육 연구회 역 인간을 위한 미술교육**. 서울: 미진사.
- 문찬식(2004). **중등미술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소영(2002). **미술과 교육의 동향 및 교육과정**. **교육광장** 13호. 한국

- 교육과정 평가원.
- 박휘락(1995). **한국미술교육사**. 서울: 예경.
- 서울미술고(1999). **미술전문교과 교실제 운영을 통한 창의력 계발**. 자율학교 시범운영 보고서.
- 양윤정(2001).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 기준과 평가 기준 개발 연구**, 고등학교 미술 1학년.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윤양희(1991). **미술과 교육의 역할 및 평가 방향 탐색**. 교육개발 통권 70호. 한국교육개발원.
- 이규선 외(2000). **미술교육학**. 서울: 교육과학사.
- 이상희(2001). **고등학교 미술교육 실기환경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애(1995). **미술교육 향상을 위한 교육 환경의 실태조사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옥(2001). **정서 지능 증진 프로그램이 유아의 감정이입 및 문제해결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선하(1998). **창의성예의 초대**. 서울: 교보문고.
- 임정기 외(2006). **미술교육 총론**. 서울: 예경.
- 임정기 외(2006). **미술교육의 이해와 방법**. 서울: 예경.
- 전성수(2006). **교과교육학 & 미술교육학**. 서울: 한국학술정보(주).
- 정원식 외(1994). **교육 심리학**. 서울: 교육출판사.
- 조미옥(1999). **미술교사의 전공분야와 학교미술교육과의 관계 연구**.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명희(1979). **도덕적 요인으로서의 정서의 역할과 교육**. 교육학연구. 제17권 2호.
- D. Goleman(1995). **Emotional Intelligence**. N.Y. Bantam.

<부록>

인문계 고등학교 미술 수업 환경에 관한 설문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인문계 고등학교 현장의 미술 교육 실태를 파악하여 소양 교육으로서의 미술 교과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게 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미술 교육의 실태 및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학생 여러분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설문 결과는 공개되지 않으며 연구용도로만 쓸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은 본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입니다. 해당란에 V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별 : ____① 남 ____② 여

※ 응답 요령 : 학생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의 ____ 위에 V표를 하면 됩니다.

I. 다음은 미술 교과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는 문항입니다.

1. 제7차 교육과정 10학년(고1)에 미술교과 수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____① 매우 필요한 교과이다
 ____② 약간 필요한 교과이다
 ____③ 보통이다
 ____④ 거의 필요하지 않은 교과이다
 ____⑤ 전혀 필요하지 않는 교과이다
2. (1번에서 ①, ②에 답 한 경우)미술교과 수업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① 정서 함양에 도움을 주므로
 ____② 생활에 도움을 주는 교과이므로
 ____③ 창의력 배양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____④ 수능 시험 언어 영역에 가끔 출제되므로
 ____⑤ 기타
3. 미술교과 수업이 일상 생활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____① 관련이 매우 많다
 ____② 관련이 많다
 ____③ 보통이다
 ____④ 관련이 적다
 ____⑤ 관련이 매우 적다

4. 학생의 미술 교과에 대한 선호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____① 매우 높다
 ____② 높다
 ____③ 보통이다
 ____④ 낮다
 ____⑤ 매우 낮다
5. (4번에서 ①, ②에 답 한 경우) 미술교과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① 실기 시간이 많아서
 ____② 교과 내용이 재미있어서
 ____③ 학습 내용이 어렵지 않으므로
 ____④ 평가에 대한 부담이 적은 편이라서
 ____⑤ 기타
6. (4번에서 ④, ⑤에 답 한 경우) 미술교과를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① 실기 시간이 많아서
 ____② 실기 준비물이 있어서
 ____③ 실기 평가에 대한 부담 때문에
 ____④ 대학입시와 관련이 적은 과목이라서
 ____⑤ 기타
7. 미술 실기수업을 받을 때 주로 어떠한 느낌을 갖게 됩니까?
 ____① 즐거운 기분으로 안정된 정서를 느낀다.
 ____② 표현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속이 상한다.
 ____③ 남보다 잘하고 싶은 경쟁심이 많이 생긴다.
 ____④ 평가 점수 때문에 할 수 없이 한다는 느낌이다.
 ____⑤ 기타
8. 부모님의 미술 과목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는 어떠하다고 생각합니까?
 ____① 매우 높다
 ____② 비교적 높다
 ____③ 보통이다
 ____④ 비교적 낮다
 ____⑤ 전혀 관심없다

II. 입시교육과 관련한 미술교육 내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9. 미술 과제를 수행할 때 부모님의 반응은 어떠하다고 생각합니까?
 ____① 관심을 안 두신다
 ____② 싫은 내색을 하신다
 ____③ 열심히 하라고 하신다
 ____④ 다른 공부를 하라고 하신다.
 ____⑤ 기타()

10. 미술 이론 수업이 입시 교육과 어떠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____① 매우 높다
 ____② 높다
 ____③ 보통이다
 ____④ 낮다
 ____⑤ 매우 낮다
11. 내신 성적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미술 평가 점수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입니까?
 ____① 매우 높다
 ____② 높다
 ____③ 보통이다
 ____④ 낮다
 ____⑤ 매우 낮다
12.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미술동아리에 참여할 생각이 있습니까?
 ____① 매우 참여하고 싶다
 ____② 약간 참여하고 싶다
 ____③ 보통이다
 ____④ 거의 참여하고 싶지 않다
 ____⑤ 전혀 참여하고 싶지 않다
13. (12번에서 ④, ⑤에 답한 경우)미술동아리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① 소질과 적성이 맞지 않아서
 ____② 부모님이 반대하실 것 같아서
 ____③ 시간을 많이 빼앗길 것 같아서
 ____④ 대학입시와 관련이 적은 분야라서
 ____⑤ 기타()
14. 교내에서 담임이나 다른 과목 선생님의 의해서 미술 실기작업을 제재나 방해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____① 매우 많다
 ____② 조금 있다
 ____③ 보통이다
 ____④ 거의 없다
 ____⑤ 전혀 없다
15.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앞두고 미술 실기 수행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면, 어떠한 느낌이 듭니까?
 ____① 매우 부담된다
 ____② 조금 부담된다
 ____③ 보통이다
 ____④ 거의 부담되지 않는다
 ____⑤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Ⅲ. 미술교과의 물리적 여건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6. 미술실을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___ ① 매시간 사용 한다
___ ② 자주 사용 한다
___ ③ 가끔 사용 한다
___ ④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___ ⑤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17. (16번에서 ①,②,③에 답 한 경우) 미술실을 사용하면서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___ ① 작품을 보관할 공간이 없어서
___ ② 냉난방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___ ③ 외진 곳에 있어서 이동하기가 힘들다
___ ④ 급, 배수 시설이 없어서 실기할 때 불편하다
___ ⑤ 기타
18. 미술실 공간은 실기수업을 하기에 어떠합니까?
___ ① 매우 넓다
___ ② 넓다
___ ③ 보통이다
___ ④ 좁다
___ ⑤ 매우 좁다.
19. 학생의 미술 실기 작품을 보관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___ ① 교실 사물함
___ ② 미술실 보관대
___ ③ 교실 아무데나 둔다
___ ④ 보관할 데가 마땅찮아 집에 가져간다
___ ⑤ 기타
20. 학생들을 위한 미술실 설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___ ① 매우 만족스럽다
___ ② 만족스럽다
___ ③ 보통이다
___ ④ 불만족스럽다
___ ⑤ 매우 불만족스럽다
21. 학교에서 준비해 주는 실기 재료로 미술 실기를 하기에 어떻습니까?
___ ① 매우 만족스럽다
___ ② 만족스럽다
___ ③ 보통이다
___ ④ 불만족스럽다
___ ⑤ 매우 불만족스럽다

IV. 미술교육 개선방안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22. '정서 함양과 창의성 계발'이라는 미술 교육의 두 가지 목표를 이루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 ① 교구의 확충
___ ② 교사의 재교육
___ ③ 충분한 수업시수 확보
___ ④ 교과목의 중요도 인식
___ ⑤ 기타
23. 10학년(고1) 미술교과에 배당되어 있는 주당 1시간(50분)으로 미술실기와 이론수업을 하기에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 ① 매우 충분하다
___ ② 충분하다
___ ③ 적당하다
___ ④ 부족하다
___ ⑤ 매우 부족하다
24. (23번에서 ④, ⑤에 답한 경우)미술교과목의 주당수업시수는 몇 시간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 ① 2시간
___ ② 3시간 이상
25. 개인적으로 미술 수업에서 가장 얻고 싶은 정보의 분야는 무엇입니까?
___ ① 회화, 조소실기 및 이론
___ ② 디자인실기 및 이론
___ ③ 동서양 작품의 감상
___ ④ 현대 미술
___ ⑤ 기타
26. 미술교과목도 통합교과 학습 차원에서 보충수업을 실시하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___ ① 매우 필요하다
___ ② 필요 하다
___ ③ 보통이다
___ ④ 거의 필요 없다
___ ⑤ 전혀 필요 없다
27. 그래픽 전용 컴퓨터와 같은 첨단 교구 확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___ ① 매우 필요하다
___ ② 필요하다
___ ③ 보통이다
___ ④ 거의 필요 없다
___ ⑤ 전혀 필요 없다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 Study of Improving Fine Arts Education in the Humanities High Schools

Oh, Na-Gyeong
Major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Gyeongju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Jeon, Je Sa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ways to improve fine arts education in the humanities high schools through diagnosis and analysis of factors which are in the way of normal curriculum implementation. A survey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1st year classes of three humanities high schools located in Ulsan Metropolitan city from September 4th to September 18th in the year 2006 in order to analyse the conditions of fine arts education. The survey consisted of perceptions about fine arts, curriculum of fine arts, physical conditions of curriculum implementation, and ideas about curricular improvements.

The results of the survey we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perceptions about fine arts, it was found that 37.7% of the respondents perceived the necessity of fine arts lessons positively mainly because of its contribution to fostering creativity (42.6%). 45.3% of respondents thought fine arts lessons were related to everyday lives. 40.1% responded positively toward

fine arts lessons due to high incidence of practice sessions while it was interesting to note that those who were not in favor of fine arts lessons mentioned so due to their burden toward skills performance test. Many respondents mentioned they were not pleased with fine arts in the moments when they could not express their ideas properly. Finally, it was shown that parents were not interested in fine arts and they did not show high recognition of fine arts as well.

Second, in terms of fine arts curriculum, it was found that parents encouraged students to work on their assignments though they didn't see strong relation between instruction of fine arts theories and college entrance. It was also found that 43.5% of the respondents were not inclined to join extracurricular fine arts club activities because of their lack of aptitude and abilities. About 50 % of the respondents mentioned they were not interfered or interrupted in their act of find arts practice. Finally, 80% of the respondents replied that they felt burdensome about taking performance test in fine arts before mid-term or final tests.

Third, in terms of physical conditions, about 45% responded that fine arts room was never used. They mentioned that it was not convenient to use fine arts rooms because they were positioned in the remote corners of the school. Besides, about 50% of respondents mentioned that space of the fine arts room was not wide enough. Depots of fine arts work were mostly referred to as repository of in the fine arts room while 50% of respondents were not satisfied with the facilities in the room. Finally, about 38% of respondents mentioned they were not satisfied with the fine arts working devices produced in their schools.

Fourth, in terms of ideas for improvements of fine arts education, it was found that the primary concern for success of fine arts education was ascertaining sufficient lesson hours, followed by provision of teaching aids, recognition about the importance of

fine arts, and re-training of teachers in the descending order. Most of the respondents mentioned two hours rather than current 1 hour system will be needed for proper instruction of fine arts. 43.7% of the respondents mentioned that their favorite area of learning was that of design skills while more than the majority mentioned supplementary fine arts lessons were not necessary. Finally, about 60% of the respondents mentioned that state-of-the-art facilities and teaching aids were needed for effective instruction.

In conclusion, it was proven that, due to pressure from college entrance, fine arts education in the humanities schools are seriously suffering from lack of time, space, and physical conditions.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hat in order to improve fine arts education, change of attitude toward fine arts, normal and proper implementation of curriculum without respect to changes in college entrance system, improvement of physical conditions, and increase of weekly hours for instruction need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